

정범T

수업 고전소설의 재구성

사랑

메모 활용법

모의고사 실력 향상을 위해 평상시 문학과 독서를 분석하도록 하자.

■ 시

화자, 청자, 시적 대상, 상황, 정서, 태도를 찾는다.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면 대신할 수 있는 시어를 찾는다)

■ 소설, 극

인물 관계도, 사건, 배경, 서술 방식, 상징적 소재

■ 수필

인물, 사건, 배경, 깨달음

■ 독서

단락 정리 및 내용 전개 방식

미니 모의고사 푸는 방법

■ 1주일에 5일씩 풀도록 한다.

평일에는 1-5회 문제를 풀고, 토요일에는 틀린 문제 오답을 하도록 한다. 일요일에는 문법을 복습하자.

■ 문학과 독서 지문은 반드시 시간을 체크하여 시간을 관리하도록 한다.

■ 채점은 그날 바로 한다.

■ 모든 문제의 근거는 지문 속에 있다. 반드시 정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아 표시하도록 한다.

■ 틀린 문제는 해설을 바로 보지 말고 맞힐 때까지 다시 풀도록 한다. 정답을 찾았을 때는 해설지와 자신의 근거를 비교하며 확인한다.

■ 틀린 이유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다음에 어떻게 풀어야 맞힐 수 있는지 고민하자. 잘못된 풀이법이 있다면 수정하자.

■ **학생들끼리 복사해서 공부하는 건 OK! 단, 수업용, 과외용으로는 무단 복사 및 배포 금지!**

미니 모의고사

수특 고전소설 - 사랑

총 소요 시간

맞은 개수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0년 수능

이때 만복사는 이미 허물어져 승려들은 구석진 방에서 살고 있었다. 법당 앞에는 행랑만이 쓸쓸히 남아 있었고, 그 끝에는 ㉠**좁은 판자방** 하나가 있었다.

양생이 여인을 불러 그곳으로 들어가니 여인은 별 주저함 없이 따라 갔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즐기는 것이 보통 사람과 다름없었다. 이윽고 밤이 깊어지자 달이 동산에 떠올라 달그림자가 창살에 비쳤다. 문득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여인이 묻기를,

“누구냐? 시녀가 왔느냐?”

시녀가 말하기를,

“예, 집니다. ㉡**요즘 아가씨께서는 중문 밖을 나가지 않으셨고 뜰 안에서도 줌처럼 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옛저 때에는 우연히 나가시더니 어찌 이 먼 곳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하였다. 이에 여인이 말하기를,

“오늘 일은 아마도 우연이 아닌가 보다. 하늘이 도우시고 부처님이 돌보셔서 한 분 고운님을 만나 백년해로하기로 했느니라. 부모님께 알리지 않은 것은 비록 명교의 법전에는 어긋나지만, 서로 즐거이 맞이하게 되니 이 또한 평생의 기이한 인연일 것이다. 너는 집에 가서 앓을 자리와 술, 과일을 가져오너라.”

시녀는 그 분부에 따라 돌아갔다. 이윽고 뜰에는 술자리가 베풀어졌는데, 밤은 이미 사경(四更)에 가까웠다.

시녀는 앓을 자리와 술상을 품위 있게 펼쳐 놓았는데, 기구들이 모두 말쑥하며 무너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술에 서는 진한 향기가 풍겨 나왔는데 정녕 인간 세상의 것은 아니었다.

양생은 의심이 나고 괴이하게 생각하는 바도 있었다. 하지만 여인의 말씨와 웃음이 맑고 고우며 몸가짐과 용모가 압권했으므로, 틀림없이 귀한 집 처녀가 몰래 나온 것이라니 생각하고는 더 의심하지 않았다.

여인은 시녀에게 노래를 불러 술을 권하도록 하고는, 양생에게 말했다.

“이 아이는 옛 가곡을 그대로만 부릅니다. 제가 새로운 가사를 하나 지어서 술을 권해 드려도 될까요?”

양생은 기뻐하며 대답했다.

“예.”

여인은 만강홍 곡조에 맞추어 가사를 지어 시녀에게 부르게 했다.

(중략)

잔치가 끝나자 작별하게 되었다. 여인이 은주발 하나를 내어 양생에게 주며 말했다.

“내일 보련사에서 부모님께서 제게 음식을 내려 주십니다.

만약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길가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함께 절로 가서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려 주십시오.”

“종소.”

이튿날 양생은 여인이 시킨 대로 주발을 쥐고 서서 보련사로 가는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과연 어떤 귀족 집안에서 딸의 대상(大祥)을 치르기 위해 수레와 말을 길게 이끌고 보련사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때 길가에서 한 서생이 주발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본 종이 주인에게 말했다.

“아가씨 장례 때 함께 묻었던 물건을 어떤 사람이 훔쳐서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저 서생이 가지고 있는 주발을 보십시오.”

주인은 말을 몰아 양생에게 다가가 그 연유를 물었다. 양생은 그 전날 여인과 약속한 일을 그대로 이야기했다. 여인의 부모는 놀라고 의아하게 생각하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다.

“내겐 딸만 하나 있었네. 그런데 그 아이는 왜구들의 난리 때 싸움의 와중에 죽고 말았지. 정식으로 장례도 치르지 못해서 개령사 옆에다 임시로 묻어 두고, 장사를 미루어 오다가 오늘에 이르게 되었네. 오늘이 벌써 대상* 날이라 재(齋)를 올려 명복이나 빌어 줄까 해서 가는 길일세. 자네가 약속을 지키려거든 내 딸을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오게. 그리고 조금도 놀라지 말게.”

말을 마치고 부모는 먼저 보련사로 떠나고, 양생은 우두커니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약속한 시간이 되자 과연 한 여인이 시녀를 데리고 하늘거리며 왔다. 그 여인이었다. 그들은 서로 기뻐하며 손을 잡고 절 안으로 들어갔다.

여인은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하얀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데 친척들과 승려들은 모두 그녀를 보지 못하고 오직 양생만이 볼 수 있었다. 여인이 양생에게 말했다.

“진지 드시죠.”

양생은 여인의 말을 그녀의 부모에게 전했다. 부모가 시험 삼아 함께 밥을 먹도록 명했더니 수저 놀리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지만, 인간이 먹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여인의 부모는 이에 경탄해 마지않더니, 양생에게 그곳에서 여인과 함께 머물도록 권했다. 밤중에 그들의 이야기 소리가 낭랑히 들렸지만 사람들이 가만히 엿들으려 하면 갑자기 중지되곤 했다.

- 김시습, ‘만복사저포기’ -

* 대상: 죽은 지 두 돌 만에 지내는 제사.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6년 10월

전라도 남원에 살고 있는 양생은 일찍이 아버이를 여윈 뒤 여태껏 장가를 들지 못하고 만복사 동쪽 골방에서 홀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고요한 그 골방 문 앞에는 배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었는데, 바야흐로 봄을 맞이하여 꽃이 활짝 피어 온 뜰 안 가득 백옥의 세계를 환하게 밝혀 놓았다. ㉠ 그는 달 밝은 밤이면 언제나 객회(客懷)를 억누르지 못하여 나무 밑을 거닐곤 했는데, 어느 날 밤 그 꽃다운 정서를 견잡지 못하고 문득 ㉡ 시 두 수를 지어 읊었다.

한 그루 배꽃나무 적료함을 짝하고
가련하다 달 밝은 밤 헛되이 보내나니
젊은이만 홀로 누운 외로운 창가에
어디서 고운 님은 옥통소를 불고 있나

짝 못 지은 비취새 외로이 날아가고
짝 잃은 원앙도 맑은 강에 노니는데
뉘 집에서 바둑 두리란 약속이 있으리까
밤이면 서러운 창에 기대 불꽃점을 쳐 보네.

시를 다 읊고 나자 별안간 공중에서 이상한 말소리가 들려왔다.

“진정으로 자네가 좋은 배필을 얻고자 하는데 그 무엇이 어려울 게 있으리오.”

이 소리를 듣고 양생은 크게 기뻐하였다.

그 이튿날은 마침 삼월 이십사일이었다. 해마다 이날이 되면 그곳 마을의 많은 청년 남녀들이 으레 만복사를 찾아가 향불을 피우고는 각기 제 소원을 비는 풍습이 있었다. 이날 양생은 저녁에 기도가 끝나자 법당에 들어가서 소매 깊이 간직하고 갔던 저포(樛蒲)를 꺼내어 불전에 던지기 전에 먼저 소원을 빌었다.

“자비로운 부처님, 오늘 저녁엔 제가 부처님과 함께 저포 놀이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지면 법연(法筵)을 차려서 부처님께 갚아드릴 것이고, 만일 부처님께서 지시면 반드시 제 소원인 어여쁜 아가씨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 축원을 마치고는 즉시 저포를 던지자, 과연 그는 소원대로 승리를 얻게 되었다. 그는 매우 기뻐서 다시금 불전에 꿇어앉아 말씀을 드렸다.

“부처님이시여, 저의 아름다운 인연은 이미 정해졌사오니, 원컨대 자비하신 부처님께서서는 소생을 저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그는 불좌 뒤 깊숙한 곳에 앉아서 동정을 살폈다.

얼마 안 되어 과연 아가씨 하나가 들어오는데, 나이는 한 열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고, 새까만 머리에 ㉣ 화장을 곱게 한 얼굴이 마치 채운(彩雲)을 타고 내려온 월궁의 선녀와 같고 자세히 보면 볼수록 너무나도 곱고 양전하였다.

그녀는 백옥 같은 손으로 등잔에 기름을 부어 불을 켜고 향로에다 향을 꽂은 뒤 세 번 절을 하고는 꿇어앉아 슬피 탄식하였다.

“아아, 인생이 박명하다고는 하나 어찌 이와 같을 줄 알았

겠는가?”

여인은 품속에서 뭔가 글이 적힌 종이를 꺼내어 탁자 앞에 바쳤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아무 고을 아무 땅에 사는 아무개가 아뢰옵니다.

지난날 변방을 잘 지키지 못해 왜구가 침략하였습니다. 창과 칼이 난무하고 위급을 알리는 봉화가 몇 해나 이어지더니 가옥이 불타고 백성들이 노략질 당하였습니다. 이리저리로 달아나 숨는 사이 친척이며 하인들은 모두 흩어져 버렸습니다. ㉤ 저는 연약한 여자인지라 멀리 달아나지 못하고 스스로 규방 속에 들어가 끝내 정절을 지켜서 무도한 재앙을 피하였습니다. 부모님은 여자가 절개를 지킨 일을 옹계 여기셔서 외진 땅 외진 곳의 풀밭에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셨으니, 제가 그곳에 머문 지도 이미 삼 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을 하늘에 뜬 달을 보고 봄에 핀 꽃을 보며 헛되이 세월 보냄을 가슴 아파하고, 떠가는 구름처럼 흐르는 시냇물처럼 무료한 하루하루를 보낼 따름입니다. 텅 빈 골짜기 깊숙한 곳에서 기구한 제 운명에 한숨짓고, 좋은 밤을 홀로 지새우며 오색찬란한 난새가 혼자서 추는 춤에 마음 아파합니다. ㉥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제 늙은 늙아 없어지고, 여름밤 겨울밤마다 애간장이 찢어집니다.

바라옵나니 부처님이시여, 제 처지를 가엾게 여겨 주소서. 제 앞날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어쩔 수 없겠으나, 기구한 운명일망정 인연이 있다면 하루 빨리 기쁨을 얻게 하시어 제 간절한 기도를 저버리지 말아 주소서.

여인은 소원이 담긴 종이를 던지고 목메어 슬피 울었다. 양생이 좁은 틈 사이로 여인의 자태를 보고는 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뛰쳐나가 말했다.

“좀 전에 부처님께 글을 바친 건 무슨 일 때문입니까?”

양생은 종이에 쓴 글을 읽어 보더니 기쁨이 얼굴에 가득한 채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기에 이 밤에 여기까지 오셨소?”

그녀는 대답했다.

㉦ “저도 역시 사람입니다. 저를 의아한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당신은 다만 좋은 배필을 얻으려는 것이지요?”

이때 만복사는 이미 퇴락하여 승려들은 한쪽 구석진 골방으로 옮겨가 있었고, 법당 앞에는 행랑만이 쓸쓸히 남아 있었으며, 행랑이 끝난 곳에 좁다란 판자방이 하나 있었다. 양생이 여인을 불러 그곳으로 들어가니 여인은 별 주저함 없이 따라갔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즐기는 것이 보통 사람과 다름없었다.

(중략)

두 사람은 서로 웃으며 함께 개령동으로 향하였다. 어느 한 곳에 이르니 다복쑤이 들을 덮고 참천한 고목 속에 정쇄한 수간 초당이 나타났다. 양생은 아가씨가 이끄는 대로 따라 들어갔다.

방 안에는 침구와 휘장이 잘 정리되어 있고, 밥상을 올리는데 모든 음식이 어젯밤 만복사의 차림과 차이가 없었다. 양생은 펴이나 기쁜 마음으로 이틀 동안을 유유히 보냈다. 시녀는 얼굴이 매우 아름답고 조금도 교활한 면이 없었

다. 좌우에 진열되어 있는 그릇들은 깨끗하고 품위가 있어 그는 간혹 의아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은근한 정에 마음이 끌려 다시금 그런 생각을 되풀이하지 않았다.

어느 날 갑자기 그녀는 양생에게 말했다.

“당신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곳의 사흘은 인간의 삼 년과 같습니다. 가연을 맺은 지가 잠깐인 듯하오나 오래 되었사오니, 너무 서운하긴 하나 당신은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셔서 옛날의 살림을 돌보심이 어떻겠습니까?”

“여보시오. 이별이라니 갑작스레 그게 웬 말이오?”

“오늘 못 다 이룬 소원은 내세에 다시 만나 다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예절도 인간과 다름이 없사오니 저의 친척과 이웃 동무들을 만나보고 떠나심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대화가 끝나자 그녀는 시녀를 시켜 친척과 이웃 동무들을 초대하였다.

- 김시습, 「만복사저포기」 -

정리	
----	--

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반복되는 행동에 담긴 양생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② ㉡: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여인의 외양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과거 회상을 통해 자책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과장된 표현을 통해 절실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⑤ ㉤: 되묻는 방식을 통해 양생의 의중을 확인하고 있다.

6. ㉠과 ㉢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에 비해 화자의 다양한 소망이 열거되고 있다.
- ② ㉠은 ㉢와 달리 자연물에 감정을 투영하여 자신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 ③ ㉢은 ㉠에 비해 본심을 숨긴 채 우회적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
- ④ ㉢은 ㉠와 달리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암시하고 있다.
- ⑤ ㉠과 ㉢는 모두 가정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화자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7.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만복사저포기」의 양생은 불우한 삶으로 인해 현실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지 못하는 인물이다. 양생은 결국 현실에서 문제 해결의 출구를 만들지 못하다가 환상 세계의 존재와 교류하게 됨으로써 욕망의 충족을 경험한다. 하지만 현실 세계와 환상 세계는 서로 다른 질서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환상 세계에서 이룬 욕망의 성취는 현실 세계에까지 이어지지 못한다.

- ① 양생이 부처님에게 저포 놀이를 하자고 제안한 것은, 현실 세계와 환상 세계의 대립을 해소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겠군.
- ② 양생과 여인이 서로 만나 즐거움을 나누는 곳이라는 점에서, 만복사는 현실 세계의 존재와 환상 세계의 존재가 교류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여인이 양생에게 이곳의 사흘이 인간 세계의 삼 년과 같다고 말하는 장면은, 현실 세계와 환상 세계의 질서가 다름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양생이 여인과 이별하고 인간 세계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환상 세계에서 성취된 욕망이 현실 세계에까지 이어질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양생이 좋은 배필을 얻고자 했으나 여태껏 장가를 들지 못했다는 것은, 그가 현실 세계에서는 충족되지 못한 욕망을 안고 살아왔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08년 수능

유 한림은 두(杜) 부인 모자를 집으로 초청했다. 큰 잔치를 열어 전별하려는 것이었다. 두 부인은 그 자리에 사씨가 없는 것을 보고는 ㉠ 은중일 언짢은 표정을 짓고 있다. 마침내 한림에게 말했다.

“오라버니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로 조카님을 의지해 지내왔네. 이제 만 리 먼 작별을 앞두고 내가 한 마디 부탁을 하려고 하네.”

유 한림은 무릎을 꿇고 물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다른 일이 아니라 바로 사씨 문제라네. 사씨는 오라버니께서 아끼던 사람으로 성품이 본래 근실하고 신중하네. 그에게 죄과가 없으리라는 것은 백 번이라도 보장할 수 있지. 내가 떠난 후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절대 그대로 믿지 말게. 설혹 그의 잘못을 눈으로 직접 보았다라도 반드시 내게 편지를 보내 의논해 주게. ㉡ 부디 가볍게 처리하지 말게나.”

“삼가 가르침을 받들겠습니다.”

두 부인이 이어서 시비를 돌아보며 물었다.

“부인은 어디 계시냐? 내 직접 가 보아야겠다.”

시비는 두 부인을 모시고 사씨가 있는 곳으로 갔다. 사씨는 누추한 방에 거적을 깔고 있어 보기에다 처참했다. 나무 비녀와 베치마에 다복썩처럼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있는데, ㉢ 몸은 초췌하여 의복도 이기지 못할 듯했다.

사씨는 두 부인을 맞아 절을 올린 후 말했다.

“숙숙*께서 영귀하여 멀리 떠나시지요. 그러나 돌아보건대 저는 상복을 입은 사람이고 또한 씻을 수 없는 죄명을 지고 있어, 감히 뜰에 나가 경하 드리며 떠나시는 길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집에 오셨다는 말을 들었지만 또한 나가서 뵈올 수가 없었습니다. ㉣ 이생에서는 다시 존안을 대할 날이 없을 듯하여 무궁한 한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부인께서 이 누추한 곳까지 왕림하셨습니다.”

“오라버니께서 임종하실 때 한림을 내게 부탁하셨지. 그 말씀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네. 내가 조카를 잘 인도하지 못한 탓에, 자네를 이 지경에 이르게 했어. 모두 내 허물일세. 그런데 ㉤ 내가 몇 해 전에 자네에게 했던 말을 혹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가?”

사씨는 다시 절을 하고 대답했다.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찌 잊을 날이 있겠습니까? 제가 눈을 있으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 어찌 감히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중략 부분의 줄거리] 두 부인이 떠난 뒤, 사씨는 또다시 교씨의 흥계에 빠진다. 교씨는 울면서 사씨를 모함한다.

마침내 한림은 화를 벌컥 냈다.

“투부*가 처음에 저주를 했을 때, 나는 부부의 정의를 생각하여 차마 적발할 수가 없었지. 그 후 신성현에서 더러운 행실을 한 단서가 이미 드러났을 때에도 죄를 묻지 않았어. 지금 또 이렇게 세상에 보기 드문 흉악한 짓을 하다

니……. 이 사람을 집안에 그대로 둔다면 조상께서 제사를 흠향하지 않으시고, 자손도 완전히 끊어질 거야.”

한림은 교씨를 위로하였다.

“오늘은 이미 저물었네. 날이 밝으면 일가들을 모아 사당에 고한 후에 투부를 내칠 것이네. 그리고 자네를 부인으로 삼을 것이야. 쓸데없이 슬퍼하지 말게. 꽃 같은 얼굴만 상하겠네.”

교씨는 눈물을 거두며 대답했다.

“그같이 조치하시다니……. 이제 첩의 원한이 거의 풀렸습니다. 하지만 ㉦ 부인의 자리를 첩이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한림은 즉시 일가들에게 통지하여 아침에 모두 사당 아래로 모이게 했다.

아아! 유 소사는 지하에서 일어날 수 없고 두 부인도 만리나 멀리 떠났으니, 누가 한림의 뜻을 돌릴 수 있겠는가? 여러 시비들이 달려가 사씨에게 그 전말을 고하고 통곡하였다.

- 김만중, 「사씨남정기」 -

* 숙숙: 두 부인의 아들을 가리킴.

* 투부: 질투심이 많은 여자. 사씨를 가리킴.

정리	
----	--

8.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건이 사실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 ② 인물의 심리가 세밀하게 묘사되고 있다.
- ③ 대화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 ④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 ⑤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06년 9월

유 한림의 아버지 유공은 이윽고 주파를 보내 사 급사 부인에게 혼인할 뜻을 전하게 했다. 사 급사 부인이 주파를 불러 보았다. 주파는 먼저 유공의 가문이 대대로 부귀하며 한림의 문채와 풍류가 빼어남을 칭찬했다.

주파는 이어서 다시 말했다.

“어느 재상인들 유공에게 혼인을 청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유공께서는 ‘소저의 자태가 국색(國色)이요 재덕이 출중하다.’는 소문을 들으셨답니다. 이에 소인으로 하여금 중매를 서게 한 것입니다. 소저께서는 유공 덕의 폐백을 받는 날 바로 명부(命婦)*가 되실 것입니다. 부인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부인은 매우 기뻐했다. 그렇지만 소저와 의논하고자 하여 주파를 기다리게 하고 손수 소저의 침소로 갔다. 부인은 주파가 말한 대로 전하고 소저의 뜻을 물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생각을 숨기지 말아라.”

그러자 소저가 대답했다.

“소녀가 들으니 유공은 당대의 어진 재상이라 합니다. 혼인을 맺음에 불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주파의 말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소녀가 들건대 ‘군자는 덕을 귀히 여기되 색(色)을 천하게 여기며, 숙녀는 덕을 가지고 시집을 가되 색으로 지아비를 섬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파가 먼저 소녀의 색을 칭찬했습니다. 소녀는 그것을 몹시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공 덕의 부귀함은 크게 자랑하면서도 돌아가신 아버님의 성덕(盛德)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혹시 주파가 미천한 사람이라서 유공의 뜻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소위 ‘유공이 어진 사람이다.’고 하는 말은 헛소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소녀는 그 덕에 들어가기 원하지 않습니다.”

사 급사 부인은 평소 딸을 몹시 사랑했다. 어찌 그 뜻을 어길 리가 있었겠는가? 부인은 밖으로 나가 주파에게 말했다.

“유공께서는 소녀의 재색에 대해 잘못 들으셨던 것이오, 소녀는 가난한 집에서 성장하였소. 손으로 직접 방적(紡績)하면서 여공(女工)이나 조금 익혔을 따름이라

[A] 오. 어찌 부귀한 집안의 부인에 걸맞은 화용 성식(華容盛飾)이 있을 리가 있겠소. 혼사를 맺은 후에는 필시 소문과 다르다 하여 죄를 얻을 것이오, 그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지요. 청컨대 그렇게 회보해 주시기 바라오.”

주파는 그 말을 듣고 몹시 이상하게 여겼다. 이에 재삼 흔쾌한 승낙을 얻고자 노력했다. 그렇지만 ㉠ **부인의 말씀에는 변함이 없었다.** 주파는 돌아가 그대로 유공에게 아뢰었다.

유공은 자못 불쾌했다. 한동안 말을 하지 않더니 다시 주파에게 물었다.

“애초 자네가 무엇이러 말씀을 하셨던가?”

주파는 자신이 했던 말을 빠짐없이 전했다. 그제야 유공은 깨닫고서 웃었다.

“내가 일에 소홀하여 자네를 제대로 가르쳐 보내지 못한 탓일세. 잠시 물러나 계시게.”

유공은 그 이튿날 친히 신성현으로 가서 지현(知縣)을 만났다. 사 급사 덕에 청혼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었다.

“일찍이 주파를 보내 혼인할 뜻을 전하게 했었지요. 그런데 저 덕의 대답이 이리이러했습니다. 필시 주파가 실언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수고롭겠지만 선생께서 한번 사 급사 덕을 방문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지현이 대답했다.

“유공께서 명하시는데 감히 따르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다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하실 것이 없습니다. 단지 ‘사 급사의 청명(淸名)을 흠모하며 또한 소저가 부덕(婦德)을 갖추었다고 들었다.’는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저 덕에서 의당 허락하실 것입니다.”

“삼가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지현은 마침내 아전을 사씨 덕으로 보내어 ‘지현 상공께서 장차 찾아오실 것이다.’고 전하게 했다. 부인은 그 행차가 혼사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객당을 청소하고 지현을 기다렸다.

이튿날 아침 지현이 도착했다. 소저의 유모가 소공자 희랑을 품에 안고 나아가 지현을 영접했다. 유모는 객당 마루로 지현을 안내하고 물었다.

“주인께서는 이미 세상을 떠셨습니다. 어린 주인께서 나아가 어려 아직 손님을 접대할 줄 모르십니다. 지현께서 무슨 일로 이렇게 왕림하셨습니까?”

지현이 말했다.

“다른 일이 아니지. 어제 유공께서 관아로 오셔서 내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네. ‘아들 혼사 때문에 처자가 있는 집을 찾은 바가 적지 않았으나 하나도 마음에 드는 곳이 없었습니다. 들건대 사 급사 덕의 처자는 유한하고 요조하여 여사(女士)의 풍모가 있다 합니다. 이는 진정 내가 찾던 사람입니다. 하물며 ㉡ **사 급사의 청명(淸名)과 직절(直節)은 평소 흠양하던 바였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주파를 보냈으나 좋은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주파가 실언하여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고 말이지. 이제 나를 중매로 삼아 혼인을 맺으려 하신다네. 이는 좋은 일이지. 바라건대 부인에게 아뢰어 한 마디 승낙하신다는 말씀을 얻고자 하네.”

유모는 집안으로 들어갔다 곧 다시 나와 부인의 말씀을 전했다.

“지현께서 제 딸의 혼사를 위하여 누실(陋室)로 왕림하시니 참으로 황공합니다. 말씀하신 바 유공 덕과의 혼사는 다만 감당치 못할까 두려울 따름입니다. 어찌 명을 어길 수 있었습니까?”

지현은 기뻐하며 돌아가 유공에게 편지로 통지했다. 유공도 크게 기뻐하며 길일(吉日)을 택했다. 유 한림이 육례(六禮)*를 갖추어 친히 신부를 맞이했다.

- 김만중, 「사씨남정기」 -

* 명부(命婦) : 국가로부터 봉작(封爵)을 받은 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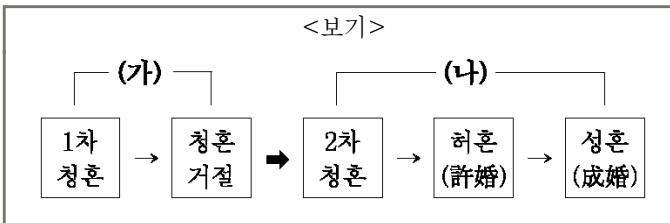
* 육례(六禮) : 혼인의 여섯 단계 절차.

정리

12.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현재와 과거 장면의 교차가 빈번하다.
- ② 사건 전개가 전기적(傳奇的)이고 우연적이다.
- ③ 등장인물들 사이에 생겨났던 오해가 해소된다.
- ④ 선한 인물과 악한 인물의 대립이 잘 드러난다.
- ⑤ 환상적 장면 묘사를 통해 탈속적 분위기가 조성된다.

13. <보기>는 위 글의 혼인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가)와 (나)의 차이점을 잘못 정리한 것은? [3점]



- | | |
|--------------------------|----------------|
| (가) | (나) |
| ① 청혼하는 자: 경솔하게 생각한다. | 신중하게 행동한다. |
| ② 전달하는 자: 용모와 부귀를 강조한다. | 덕성과 가풍을 강조한다. |
| ③ 접대의 양상: 사 급사 부인이 맞이한다. | 소공자(유모)가 맞이한다. |
| ④ 혼인 당사자: 자기 주장을 펼친다. | 혼인 의사를 직접 밝힌다. |
| ⑤ 사건의 결과: 혼인이 성사되지 않는다. | 혼인이 성사된다. |

14. 문맥을 고려할 때, [A]의 말하기 방식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1점]

- ① 상대방이 잘 알아듣도록 요점을 반복하여 말한다.
- ② 거절할 때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완곡하게 말한다.
- ③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익살과 기지를 섞어 말한다.
- ④ 상대방과 대립될 때는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논리적으로 말한다.
- 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상대방의 감정에 호소하는 말을 한다.

15. ㉠에 나타난 부인의 태도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요지부동(搖之不動) ② 오불관연(吾不關焉)
- ③ 삼고초려(三顧草廬) ④ 노심초사(勞心焦思)
- ⑤ 유구무언(有口無言)

16. ㉡으로 보아 '사 급사'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낸 것은?

- ①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萬壽山) 드렁칠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천년만년(千年萬年) 지내리라
- ② 추강(秋江)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노매라
낙시 들이치니 고기 아니 무노매라
무심한 달빛만 싯고 빈 배 저어 오노매라
- ③ 국화(菊花)야 너는 어이 삼월 춘풍 다 지내고
낙목한천(落木寒天)에 네 홀로 피었나니
아마도 오상고절(傲霜孤節)은 너뿐인가 하노라
- ④ 재 너머 성 권농(成勸農) 집의 술 익닷 말 어제 듣고
누운 소 발로 박차 언치 놓아 지졸타고
아이야 네 권농 계시냐 정 좌수(鄭座首) 왔다 하여라
- ⑤ 두류산(頭流山) 양단수(兩端水)를 예 들고 이제 보니
도화(桃花) 뜬 맑은 물에 산영(山影)조차 잠겼어라
아희야 무릉(武陵)이 어디오 나는 옌가 하노라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4년 예비시행 A형

하루는 유 한림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석 낭중이란 사람이 편지를 보내 남쪽 지방이 고향인 동청이란 자를 천거했다.

동청이란 사람은 일찍 부모를 여의고 세상에 떠돌며 무뢰배와 어울려 주색잡기를 일삼았다. 그나마 있던 재산을 탕진하고 생계가 막연하여 객지로 나와 대갓집에 [A] 빌붙어 살았다. 잘생긴 얼굴에 말주변과 글재주가 있으니 이름난 선비들이 처음에는 이 사람을 받아들여 잘 대해 주었다. 그러나 그 자체들을 유혹하여 나쁜 짓을 같이 하는 바람에 결국 쫓겨나게 되었다.

그러다가 석 낭중의 집에까지 오게 되었고, 낭중도 동청의 정체를 알고는 괴로워하던 중이었다. 낭중이 마침 외직으로 부임하는 차에 동청의 허물을 감추고 유 한림에게 소개한 것이다.

유 한림은 마침 마땅한 사람을 구하던 차였다. 동청을 만나 보니 말하는 것이 흐르는 물과 같고 풍모도 반듯하여 흔쾌히 서사(書士)*의 직분을 맡겼다. 동청은 재주가 있고 눈치가 빨라 매사를 한림의 뜻대로 챙기니 신임이 두터웠다.

이를 본 사씨가 한림에게 말했다.

“첩이 듣기로 동청은 정직하지 않아 여러 곳에서 배척을 받았다 하옵니다. 그러니 머무르게 하지 말고 빨리 내보내소서.”

유 한림이 말했다.

“동청을 머물게 하는 것은 단지 글을 구함이지 벗을 삼으려는 것이 아니오. 무슨 상관이 있겠소?”

사씨가 말했다.

㉠ **“비록 벗은 아니지만 좋지 않은 사람과 같이 있으면 자연히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집안에 두어 법도가 잘못될까 걱정하는 것이옵니다.”**

한림이 말했다.

“부인의 말씀이 옳지만 남을 비방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소. 혹 동청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게 비방을 받았을 수 있으니 두고 보면 자연히 알리라. 부인은 걱정 말고 집안 하인들이나 잘 다스려 법도가 어지럽지 않게 하오.”

한편 교씨는 사씨가 동청을 배척하는 것을 알고 납매와 함께 동청과 은밀히 만나면서 계책을 의논하였다.

자고로 여자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못할 일이 없는 법이라. 십량은 교씨를 위해 남자를 유혹하는 방법을 알려 주었다. 이후로는 한림이 교씨에게 폭 빠져 종전의 모습을 잃었다. 사씨는 미심쩍은 구석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별 수 없어 그냥 두고 보았다. 교씨는 사씨를 시기하여 한림에게 여러 번 비방을 했지만 여의치 못하자 조바심이 들어 다시 십량을 불러 물었다.

“나의 이러한 재주와 용모로 남의 첩이 되어 장차 앞길이 어떻게 될지 기약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 그러니 나를 위하여 사씨를 없애면 은혜를 후하게 갚으리라.”

십량이 한참 만에 말했다.

“이 일이 참으로 난처하니 다른 묘책이 없는지라. 장주 공

자가 병들기를 기다려 여차여차 하옵소서. 다급하니 서둘러야 합니다.”

교씨가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면서 십량이 만들어 준 방자*에 쓰이는 요망한 물건들을 사방에 두루 묻고 납매를 불러 음모의 절차를 자세히 일러 주었다. 은밀하게 일을 진행하니 집안에서는 세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몇 달이 지나 가을이 되었다. 장주가 감기에 걸려 때때로 토하며 놀라는 증세를 보였다. 십량이 말한 계책을 실행할 때가 온 것이다. 장주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한림이 백자당에 오자 교씨가 울며 말했다.

“장주가 갑자기 병에 걸려 크게 앓으니 이것은 심상치 않은 일입니다. 증세를 보니 예사 병이 아니라 분명 집안 누군가가 장주를 저주하여 생긴 병인가 하나이다.”

한림이 교씨를 위로하고 나서 장주의 병세를 보니 증세가 가볍지 않았다. 매우 걱정하면서 약을 지어 먹였지만 별 차도가 없었다. 한림은 걱정하고 교씨는 곁에서 줄기차게 울었다.

한림은 교씨의 유혹에 빠져 총명이 점점 흐려져 사태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니 어찌 안타깝지 아니하랴.

— 김만중, 「사씨남정기」—

* 서사 : 문서를 정리하거나 필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

* 방자 : 남이 못되거나 재앙을 받도록 귀신에게 빌어 저주하는 술법.

정리	
----	--

17.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한 집안을 배경으로 하여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개입하여 주관적 판단이나 감정을 노출하고 있다.
- ③ 시간의 역전적 구성을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 ④ 등장인물의 선악 대결과 삼각 관계를 통해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⑤ 앞으로 전개될 사건의 단서를 제시하여 갈등의 심화를 예고 하고 있다.

18. [A]의 인물 제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양한 체험의 나열을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 ②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③ 비유적 진술을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작중 인물의 시각을 통해 인물의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
- ⑤ 요약적 서술을 통해 인물의 삶의 내력을 드러내고 있다.

19.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문학 작품은 시대적 이념이나 당대 사회상과의 관련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문학 작품을 통해 당대의 세태와 관습뿐 아니라 인간관계나 사회적 위계, 지배적 이념 등에 대한 가치관을 다각도로 확인할 수 있다.

- ① ‘석 낭중’이 ‘유 한림’에게 ‘동청’을 소개한 정황으로 보아 입신양명을 추구하는 당시의 세태를 확인할 수 있군.
- ② ‘사씨’가 ‘동청’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으로 보아 도덕성과 평판을 중시하는 당시 가치관을 짐작할 수 있군.
- ③ ‘유 한림’이 ‘사씨’를 대하는 태도로 보아 남녀의 역할과 위계에 대한 사회적 관념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교씨’가 신분 불안을 느낀다며 악행을 모의하는 것으로 보아 축첩 관행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환기되는군.
- ⑤ ‘교씨’가 요망한 물건들을 음모에 이용하는 것으로 보아 주술에 대한 사회적 믿음이 존재했군.

20. ㉠에서 ‘사씨’가 ‘한림’에게 하려는 말과 그 뜻이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뱀새가 황새 따라가면 다리가 찢어진다고 하니 그와 어울리지 마세요.
- ②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고 하니 악인을 가까이 하지마세요.
- ③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하니 좋은 말로 거절하세요.
- ④ ‘동냥치가 동냥치 꺼린다’고 하니 그를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 ⑤ ‘가재는 게 편’이라고 하니 ‘석 낭중’을 보아 그를 믿으세요.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6년 3월

[앞부분의 줄거리] 사 씨는 유한림과 혼인하여 안정된 결혼생활을 하나 침 교 씨의 음모로 가문에서 쫓겨난다. 사 씨는 온갖 고난을 겪다 강에 뛰어들려 하지만 여중(차환)의 만류로 뜻을 이루지 못한다. 사 씨는 통곡하다 잠들고 꿈속에서 낭랑을 만난다.

낭랑은 시비를 시켜 사 씨에게 차를 올리게 했다. 차를 마시고 사 씨에게 말했다.

“부인이 이곳에 온 지 오래되었으니 시비들이 반드시 의심할 거예요. 빨리 돌아가세요.”

㉠“낭랑께서 부르시어 첩이 짧은 목숨을 겨우 이었습니다만, 실로 의탁할 곳이 없으니 돌아가 봐야 응당 물에 뛰어들 뿐입니다. 낭랑께서 첩을 비루하게 여기시지 않아 시비의 말석 옆자리에라도 머물게 허락하시면 이곳에서 낭랑을 모시며 지내고 싶습니다.”

낭랑이 웃으며 말했다.

“부인은 다른 날 마땅히 이곳으로 와서 조대가*, 맹광*과 어깨를 나란히 할 거예요. 지금은 기한이 차지 않았으니 머물고자 해도 어찌 가능하겠어요? 남해도인이 그대와 깊은 인연이 있으니 잠시 의탁하도록 하세요. 이 또한 하늘의 뜻이지요.”

㉡“첩이 듣기에 남해는 세상의 한구석으로 길이 멀고 험하다 했습니다. 첩에게는 수레도 없고 양식도 없으니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곧이어 반드시 인도할 사람이 생길 터이니 심려치 마세요.”

이어서 동쪽 벽 자리의, 얼굴이 매우 아름답고 두 눈이 별처럼 빛나는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사람이 바로 그대가 말한 위나라의 장강*이랍니다.”

또 용모가 밝은 꽃과 같고 얼굴이 수려한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사람이 한나라의 반첩여*예요.”

또 서쪽 벽 자리의, 거동이 한아하면서 얼굴이 반첩여 같은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사람이 후한의 조대가예요.”

또 얼굴이 살지고 피부가 조금 검은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사람이 양처사의 아내인 맹 씨예요.”

사 씨가 다시 일어나 인사를 드리고 말했다.

㉢“여러 부인께서는 첩이 평생 모시고 심부름이라도 하길 바랐던 분들이옵니다. 오늘 직접 얼굴을 뵈 수 있을 거라고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네 부인은 각각 눈빛으로 마음을 보냈다.

사 씨가 절하고 물러나오는데, 낭랑이 말했다.

“힘쓰고 힘써, 선을 행하세요. 오십 년 뒤에 마땅히 이곳에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여동에게 명해 사 씨를 모시도록 했다. 사 씨가 대전에서 내려오자마자 대전에 열두 개의 주렴이 드리워졌고, 그 소리가 땅을 흔들었다.

사 씨는 마음이 놀라 몸이 움찔했다. 유모와 차환은 사

씨가 소생한 것을 알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사 씨가 일어나 앉으니 날은 이미 저물었다.

사 씨는 정신이 어질어질하여 오랜 뒤에야 비로소 안정되었다. 차의 향은 여전히 입안에 남아 있었고 낭랑의 말도 귀에 생생했다. 유모에게 말했다.

“내가 조금 전에 어디를 다녀왔는가?”

“부인께서 한동안 숨이 막힌 듯하더니 다시 깨어나셨습니다. 모르겠습니까, 혼백이 어디라도 다녀오셨나요?”

사 씨가 이어 꿈속에서 낭랑을 만나 서로 문답한 말을 전하고, 후원의 대숲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가 분명히 푸른 옷의 여동을 따라서 저 길로 갔네. 자네들이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나를 따라오게.”

마침내 작은 길을 따라 대숲 밖으로 가니 과연 묘당 한 채가 있었다. 현판에 ‘황릉묘’라 써 있으니, 정말로 아황과 여영의 묘당이였다. 묘당의 모습은 꿈속에서 본 것과 다름 없었으나 단청은 떨어지고 전각은 황량했다. 묘당의 문으로 들어가 대전 위까지 올라갔다. 흙으로 빛은 두 비(妃)의 소상(塑像)이 엄연히 꿈에서 본 것과 같았다.

사 씨가 향을 사르고 공손히 아뢰었다.

“천첩이 낭랑의 도우심을 입었습니다. 뒷날 하늘에서 뵈더라도 마땅히 큰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물러나 서쪽 행랑에 앉았다. 굶주림이 자못 심하여 차환에게 묘당을 지키는 집에서 음식을 얻어오게 했다. 세 사람이 음식을 나눠 요기하고 서로 말했다.

“묘당 근처에 의지할 만한 곳이 없으니 신령이 우리를 희롱했도다.”

그 무렵 해가 서산에 지고 달빛이 어둑했다. 갑자기 두 사람이 묘당의 문으로 들어왔다. 한동안 사 씨 일행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 사람이 아닐까?”

사 씨가 나아가 바라보니 한 명은 여승이요, 다른 한 명은 여동이였다.

두 사람이 말했다.

“낭자께서는 어려움을 만나 강물에 뛰어들려 하지 않았나요?”

세 사람이 놀라며 말했다.

“스님이 어찌 그것을 아시나요?”

여승이 놀라, 예를 올리며 말했다.

“저희는 동정호의 군산에 있습니다. 방금 비몽사몽간에 백의관음께서 말하기를 ‘어진 여인이 어려움을 만나 물에 뛰어들려 하니 빨리 황릉묘에 가서 구하라’ 하여 배를 저어 왔더니 과연 낭자를 여기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정말 신이하군요.”

사 씨가 말했다.

㉣“우리는 거의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이제 스님께서 구해 주시니, 매우 고마워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님을 따라가면 혹 암자에 폐를 끼칠까 걱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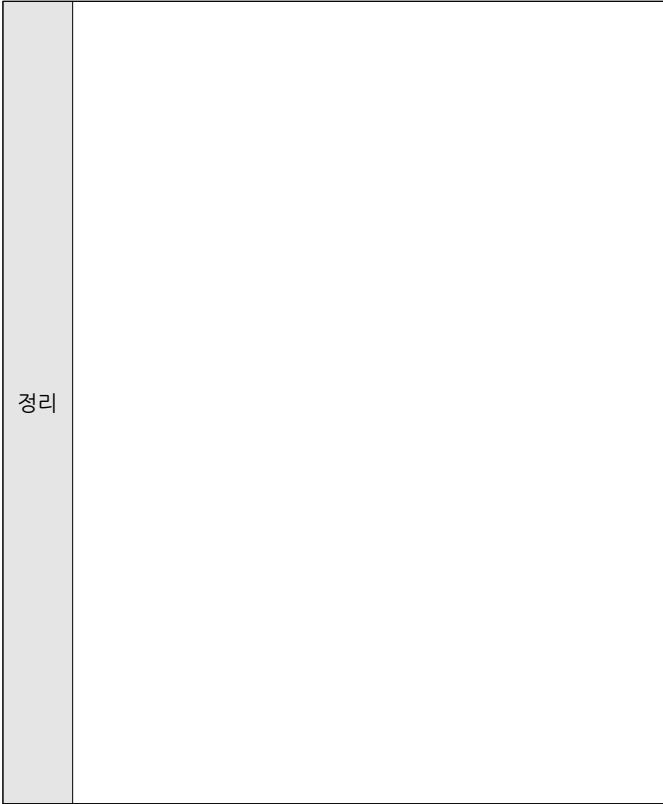
㉤“출가한 사람은 자비를 근본으로 삼습니다. 게다가 보살의 명까지 받았습니니다. 낭자께서는 염려치 마십시오.”

모두가 서로를 부축해 언덕을 내려와 배를 타고 노를 저어 갔다. 갑자기 한 줄기 순풍이 황릉묘로부터 불어와 순

식간에 군산에 도착했다. 군산은 그 이름처럼 동정호 칠백리 가운데 홀로 우뚝했다. 사방이 모두 물이고 기이한 바위들이 모였으며, 대숲은 뻑뻑하고 솔숲은 무성하여 예로부터 사람의 발자취가 닿지 않는 곳이었다.

- 김만중, 「사씨남정기」 -

* 조대가, 맹광(맹 씨), 장강, 반첩여 : 부녀자의 덕을 실천한 여성들로 알려짐.



21. 윗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 ① '사 씨'는 깨어난 뒤에도 꿈에서 경험한 일을 생생히 느꼈다.
- ② '사 씨' 일행이 찾아간 '황릉묘'는 초라하고 황량한 곳이었다.
- ③ '사 씨' 일행은 남에게 음식을 얻어먹어야 할 정도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었다.
- ④ '사 씨' 일행은 '황릉묘'를 떠나 정치 없이 방랑하던 중에 '여승' 일행을 만났다.
- ⑤ '사 씨'가 도착한 '군산'은 예로부터 세속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다.

22.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대조하여 상대방의 동정심을 자아내고 있다.
- ② ㉡: 자신이 처한 상황을 들어 상대방의 제안이 실현 불가능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자신을 낮춤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상대방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도 폐를 끼칠 것을 염려하는 마음을 밝히고 있다.
- ⑤ ㉤: 자신의 행위에 당위성을 부여하여 상대방이 느끼는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2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은 **천상계([A])**와 **지상계([B])**라는 공간, 그리고 그것을 매개하는 '꿈속', '비몽사몽간'과 같은 **반(半)현실적 공간([C])**이라는 세 개의 공간적 층위를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공간 설정은 이야기 전개와 인물 형상화의 측면에서 중요한 서사적 기능을 하고 있다.

- ① [C]에서는 [A]의 뜻에 따라 [B]에서의 사건이 전개되는 방향을 '사 씨'에게 예고하고 있다.
- ② [C]의 '꿈속'은 '사 씨'가 [B]에서 지켜나 가야 할 삶의 지표와 그녀의 예정된 미래의 모습을 알리고 있다.
- ③ [C]의 '꿈속'에서 일어난 사건은 '사 씨'가 [B]에서 느끼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심화하고 있다.
- ④ [B]의 존재인 '사 씨'가 [C]의 '꿈속'에서 만나는 '장강', '반첩여' 등의 인물은 그녀의 현숙한 인물됨과 관련지을 수 있다.
- ⑤ [B]에서 '여승'이 '사 씨'를 구하기 위해 '군산'에서 온 것은 [C]의 '비몽사몽간'을 통해 [A]의 뜻이 작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0년 3월 고2

이적에 유 소사 두 부인과 더불어 묘혜를 기다리더니, 묘혜 돌아와 웃으며 족자를 드리거늘, 유 소사 물어 가로되,

㉠ “사 소저의 재주와 용모가 과연 어떠하더뇨?”

묘혜 답하여 가로되,

“족자 가운데 사람과 같더이다.”

하고, 더하여 사 급사 부인과 소저의 문답을 자세히 고하니, 공이 크게 기뻐하여 가로되,

“사가의 여자 그 재주와 덕행이 과연 범인이 아니로다.”

하고 족자를 걸고 보니 필법이 정묘하여 한 곳도 구차함이 없고 온화하고 유순한 덕행이 글씨에 나타나니 유 소사와 두 부인이 칭찬함을 마지아니하고 글을 보매, 그 글에 하였으되,

‘관음은 옛적 성인이라. 그 덕행이 주 나라 태임·태사*와 같도다. 관저와 갈담*이 부인의 할 일인즉 외로이 공산에 있음은 분의가 아니라. 고요와 직설*은 세상을 돕고 백이와 숙제*는 주려 죽었으니, 도는 같지만 처지가 다름이라.

㉡ **화상을 보건대 흰 옷을 입고 아이를 안았도다. 그림을 인하여 그 위인을 대강 알리로다.** 옛날 지조 높은 부인네는 머리털을 끊고 목숨을 버려 세상과 인연을 끊고 오직 의리를 취하였거늘, 세속 사람들은 부처님 글을 잘 알지 못하고 한갓 거짓말하기를 좋아하니 인륜에 해로움이 있도다. 슬프다, 관음보살은 어찌하여 여기에 계신고? 외로운 섬, 대 수풀에 바다 물결이 만 리로다. 극진한 공부, 윤회에 벗어나고 어진 덕이 세상에 비치니 억만창생 뉘 아니 공경하리요? 만고에 그 이름이 불생불멸하니 거룩한 그 덕을 붓으로 찬양키 어렵도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사 소저는 유 소사의 아들과 혼인하나 모함을 받아 시집에서 쫓겨나 자결하려 하는 때에 한 여승을 만난다.

여승이 황망히 예하고 가로되,

“소승은 동정 군산사에 있더니, 아까 비몽사몽간에 관음이 현몽하사 어진 여자 환난을 만나 갈 바를 모르고 장차 물에 빠지려 하니 빨리 황릉묘로 가서 구원하라 하시매 급히 배를 저어왔더니, 과연 부인을 만나매 부처님 영험하심이 신기하도소이다.”

사 씨 가로되,

㉢ “우리는 죽게 된 사람이러니, 스님의 구함을 만나매 실로 감격하나 스님의 암자 멀고 또 귀 암자에 폐가 될까 하나이다.”

여승이 가로되,

“출가한 사람은 본대 자비를 일삼나니 하물며 부처님의 지도하심이어늘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하고 불들어 언덕에 내려 좌정한 후 여승이 여동과 더불어 배를 저어 타고 갈새, 일진순풍을 만나 순식간에 군산에 다다르매, 산이 동정호에 외로이 있으니 사면이 다 물이요, 여러 봉에 대 수풀이고 인적이 희소하더라.

여승이 배에서 내려 사 씨를 불들어 길을 따라 나아갈새, 열 걸음에 한 번씩 쉬어 암자에 들어가니 암자 이름을 수월암이라 하였는데, 가장 깊숙하고 정결하여 인세 같지 아

니하더라. 종일 고생하였으므로 잠이 들어 밤이 밝아 옴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승이 불당을 깨끗이 하고 향을 피우고 경쇠를 치며 부인을 깨워 예불하라 하거늘, 사 씨가 시비와 더불어 법당에 올라 분향하고 배례할새, 눈을 들어 살피고 문득 놀라며 눈물을 머금으니 부처는 다른 이가 아니라 16년 전에 자기가 찬을 지어서 썼던 백의(白衣) 관음 화상이라. 여승이 괴이히 여겨 물어 가로되,

㉣ “부인이 어찌 부처의 화상을 보고 슬퍼하시나이까?”

사 씨 가로되,

㉤ **“화상 위에 쓴 것이 내 아희 때에 지은 찬이니, 여기에와 보매 자연 비회(悲懷)를 금치 못하리소이다.”**

여승이 크게 놀라 가로되,

“이 말씀 같을진대 부인이 신성현 사 급사 맥 소저가 아니십니까? 부인의 용모와 음성이 이목에 익은 줄을 이상히 여겼나이다. 소승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때 부인에게 글 받아온 우화암 묘혜로소이다. 소승이 유 소사의 명을 받아와 부인에게 관음찬을 받아 가매 소사 보시고 크게 기뻐하여 혼인을 정하시고 소승에게 상을 후하게 주시니, 그때 머물러 혼사를 보려 하다가 스승을 바빠 찾아야 하매 할 수 없이 산에 돌아와 스승을 따라 10년을 수도하였더니, 스승이 돌아가시고 얼마 후에 이곳에 와 외진 곳에 암자를 짓고 고요히 공부하며 불상을 뵈올 때마다 부인의 옥설 같은 용모를 생각하더니, 알지 못해라, 부인이 어찌하여 이 지경에 이르시니잇고?”

사 씨 눈물을 흘리고 전후곡절을 일일이 설화하니 묘혜 탄식하여 가로되,

㉥ **“세상 일이 본대 이 같은 것이오니, 부인은 너무 슬퍼하지 마옵소서.”**

부인이 불상을 다시 보니, 외로운 섬 가운데 앉은 기운이 생생하여 완연히 살아있는 듯하고, 찬의 의미가 자기의 유락함*을 그렸는지라. 사 씨 탄식하여 가로되,

㉦ **“세상 일이 다 하늘이 정한 것이니 어찌 하리오!”**

하고 이날부터 관음보살에게 분향하여 인아와 다시 만나지라 축원하더라.

— 김만중, 「사씨남정기」 —

* 태임·태사 : 각각 중국의 문왕과 무왕의 어머니로 높은 덕을 지녔던 인물들.

* 관저와 갈담 : 후비의 덕을 노래한, 『시경』에 나오는 작품.

* 고요와 직설 : 순임금을 보좌했던 세 명의 신하. 고요와 직과 설.

* 백이와 숙제 : 굶어 죽으면서까지 절개를 지켰던 은(殷) 나라의 인물들.

* 유락(流落)함 : 정처 없이 떠돌.

정리

24. 위 글의 내용으로 보아 ‘관음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 씨’의 성품을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 ② ‘사 씨’에게 닥쳐올 미래의 상황을 암시한다.
- ③ ‘사 씨’와 ‘묘혜’의 만남을 연결하는 고리이다.
- ④ ‘사 씨’가 위기에 처했을 때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
- ⑤ ‘사 씨’와 ‘유 소사’ 집안의 결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25.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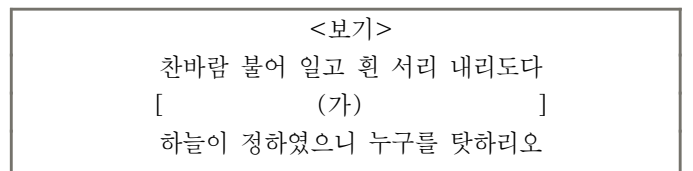
- ① ㉠ : 유 소사가 사 소저로 하여금 관음찬을 짓게 한 의도를 알 수 있다.
- ② ㉡ : 어려운 처지에 있음에도 기품을 잃지 않으려는 사 씨의 모습을 알 수 있다.
- ③ ㉢ : 묘혜가 아직 사 씨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 : 사 씨가 과거의 일을 떠올리며 슬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 : 묘혜는 앞날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사 씨를 위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6. ㉠와 유사한 방식으로 <보기>의 그림을 읽은 반응으로 볼 수 있는 것은?



- 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노니는 한가로운 정서를 담백한 필치로 여백을 살려 그려냈구나.
- ② 버드나무와 그 아래에서 낚시하는 사람의 크기와 구도가 적절하게 안배되어 안정감을 주는군.
- ③ 한적한 곳에서 여유 있게 낚시하는 모습은 물질문명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반성하게 해.
- ④ 맑고 깨끗한 자연 속에서 정갈한 옷차림으로 낚시를 하고 있으니 인물의 그윽하고 고고한 경지를 알겠구나.
- ⑤ 아름다운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에서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

27. <보기>는 ㉠와 관련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시조를 창작해 본 것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리가 풀리기 전 얼음이 맺히리라
- ② 때 이른 매화꽃은 그 누가 피워 낸고
- ③ 그 중에 갈 길 잃은 나그네 신세로다
- ④ 지름길로 찾아온 백발 어느 누가 막으리
- ⑤ 나를 떠난 우리 임도 찬바람에 떨겠구나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09년 5월 고1

이튿날 아침 지현이 도착하자, 소저의 유모가 소공자(小公子) 회랑을 안고 나아가 지현을 맞이했다. 당상(堂上)에 지현을 모시고는 유모가 여쭙었다. “주인(主人)께서는 세상을 떠나시고 소주인(小主人)께서는 나이 어려 손님 대접하는 예를 모르십니다. 노야(老爺)께서는 어인 일로 누지에 욕립하셨습니까?”

지현이 말했다. “다른 일이 아니라네. 어제 유 소사께서 관아에 오셔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네. ‘아이의 혼사로 처자(處子)의 집을 방문한 것이 적지 않으나 뜻에 맞는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만히 듣건대 사 급사 택의 처자는 유한요조(幽閑窈窕)하여 여사(女士)의 풍모가 있다고 하니 이는 참으로 제가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물며 선 급사의 맑은 이름과 곧은 절개는 평소 흠양하던 바입니다. 그리하여 일찍이 매과를 보내었으나 좋은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매과가 실언을 하여 그리 되었을 것입니다.’라고, 이에 나로 하여금 중매하게 하시어 진진지호(秦晉之好)를 맺으려 하시니 이는 아름다운 일이라. 바라건대 이로써 노부인에게 아뢰어 일언(一言)에 승낙하심을 얻고자 하네.”

유모가 들어가더니 곧 나와서는 부인의 말씀을 아뢰었다. “노야께서 소녀의 혼사를 위하여 누추한 집까지 욕립하시니 실로 황공하기 그지없습니다. 말씀하신 유 소사 택과의 혼사는 다만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울 뿐입니다. 어찌 감히 명을 어기겠습니까?”

지현은 기뻐하며 돌아가 소사에게 편지로 알리니, 소사는 크게 기뻐하여 길일을 택했다. 유 한림이 육례(六禮)로 친영(親迎)하니, 사 소저의 위위가 성대하고 예도(禮度)가 아름다움을 두고 진신(縉紳)들 사이에 흠모하고 부러워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중략 부분 줄거리] 사씨는 혼인한 지 9년이 넘도록 아이가 없자 후실을 얻도록 하여 교씨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교씨는 아들 장주를 낳게 된다.

한두 달이 지나면서 부인의 태기가 확실하게 보였다. 온 집안 사람들이 기뻐하였으나 교씨만은 홀로 얼굴빛이 좋지 않았다. 교씨는 납매와 함께 은밀하게 음모를 꾸몄다. 마침내 낙태하게 만드는 약을 사서 부인이 복용하는 약 속에 몰래 섞어 놓았다. 그러나 부인은 그 약을 마시자마자 문득 구역질을 하며 토해 버렸다. 따라서 그 계획은 성공할 수 없었다.

사 부인은 달이 차자 과연 옥동자를 낳았다. 아이는 골격이 남다르고 눈매가 맑았다. 한림은 크게 기뻐하여 아이의 이름을 인아(麟兒)라 하였다. 교씨는 비록 속으로는 탄 마음을 품고 있으나 그 뜻을 이룰 수 없었다. **○마지못해 부인에게 경하하며 겉으로 기쁜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한림과 사씨는 이를 진정으로 여겼다.

인아가 점점 자라 장주와 같이 놀게 되었다. 그런데 인아는 비록 어렸지만 기상이 탁월하여 장주가 단지 아름답기만 한 것과 차이가 있었다.

하루는 한림이 밖에서 돌아와 상의도 벗기 전에 인아를 안고 어루만졌다. “이 아이는 이마의 골격이 좋아서 선인(先人)과 매우 닮았느니라. 훗날 반드시 우리 가문을 창성하게 할 것이야.” 그리고 유모에게 이르기를 “각별히 잘 기르도록 하거라.”고 하였다. 이에 장주의 유모는 장주를 안고 교씨에게 달려가 호소하였다. “상공께서 오직 인아만을 어루만지며 장래를 촉망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장주를 보고는 못 본 체하고 그대로 들어가셨습니다.”

마침내 유모가 슬피 우니, 교씨가 더욱 근심하여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할 때 용모의 아름다움은 전혀 나은 것이 없고 정실과 첩의 지위로 현격한 차이가 있어. 단지 나는 아들을 낳고 저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어 내가 상공의 후의(厚意)를 입을 수 있었어. 그런데 이제 저 사람이 아들을 낳았으니 저 아이가 장차 이 집의 주인이 될 것이야. 내 아이는 아무 쓸데가 없을 것이 아닌가? 저 사람이 겉으로는 어진 체하나 화원에서 나를 책망한 말은 분명히 시기를 부린 것이었어. 하루아침에 나를 한림에게 모함한다면 한림이 평소 저를 믿고 있으니 내 신세는 어떻게 되겠는가?’

- 김만중, ‘사씨남정기’-

정리	
----	--

28.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 ① ‘유모’는 ‘지현’의 방문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 ② ‘한림’은 ‘교씨’의 행동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다.
- ③ ‘노부인’은 ‘유 소사’ 집안의 내력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 ④ ‘유 소사’는 자식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
- ⑤ ‘장주’는 성장하면서 씩씩하고 의젓한 인품을 지니게 되었다.

29. 글의 흐름을 고려할 때, [A]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ㄱ. '유 소사'는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자신을 뜻을 정중하게 전달하고 있다.

ㄴ. '노부인'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완곡하게 거절의 뜻을 밝히고 있다.

ㄷ. '지현'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좋은 분위기를 유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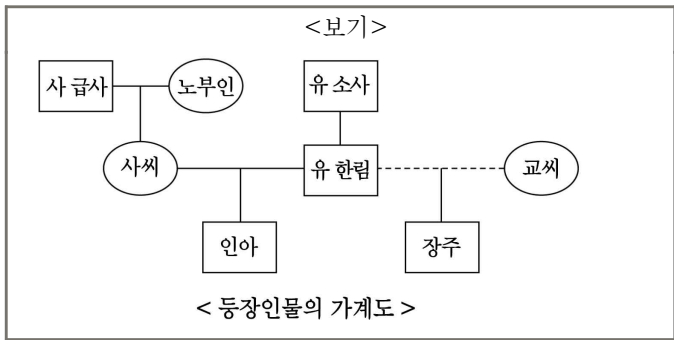
ㄹ. '유모'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 전해들은 내용에 의견을 덧붙여 말하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1. ㉠의 '교씨'의 태도를 나타낸 말로 적절한 것은?

- ① 표리부동(表裏不同)
 ② 동상이몽(同床異夢)
 ③ 수수방관(袖手傍觀)
 ④ 반신반의(半信半疑)
 ⑤ 전전긍긍(戰戰兢兢)

30.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씨'에 대한 '교씨'의 질투심은 '인아'의 출생에서 촉발된다.
- ② '교씨'와 함께 생활하는 것에 대해 '사씨'는 갈등을 느끼지 않는다.
- ③ '장주'는 어머니인 '교씨'의 입장과는 관계없이 '인아'와 같이 어울리며 지낸다.
- ④ '노부인'은 혼인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상대를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 ⑤ '장주'에 비해서 '인아'에게 각별한 정을 보내는 '한림'의 행동은 가정 내의 갈등이 해소될 것임을 암시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00년 수능

(가) 각설 이 때 한림[유연수]이 물가를 따라 점점 가며 탄식하되,

“내 당초에 혼미하고 용렬(庸劣)하여 요사한 말을 귀담아 들어 현인(賢人)을 방출하고, 위로 조상 제사를 받들지 못하고 아래로 처자의 성명을 보전치 못하고 또 신세 만 리에 떠돌고 문호(門戶) 하루 아침에 몰락하니, 이 또한 만고의 우부(愚夫)요 천지간 죄인이라. 부부의 정이 사씨에게 멀어지고 부자의 정이 인아(鱗兒)에게 단절하니 살아 무엇하리오.”

무수히 탄식하며 약주(岳州)*에 이르러 강가에서 방황하며 어부를 만나면 문득 사씨의 소식을 탐문하되 종적이 막연하고 소식이 묘연하니 한림이 더욱 원통하고 울적함을 이기지 못하여 강촌에 가 곳곳에 묻더니 촌사람이 말하되, “그 때 사씨 회사정(懷沙亭)으로 향한다 하더니다.”

오래 듣다가 황망히 행하여 회사정 아래 이르니, 고목의 잎이 누렇게 떨어진 가운데 인적이 끊어지고 여러 짐승들이 좌오루 울되, 다만 눈앞에 보이는 바는 동정호(洞庭湖)*·구의산(九疑山)*과 소상(瀟湘)*의 저물 무렵의 구름이라.

한림이 방황하며 탄식하더니 흥연 벽 위의 글을 보니 크게 썼으되, ‘모년 모월 모일에 사씨 정옥은 물에 빠져 죽노라.’ 하였거늘 한림이 크게 놀라 대성통곡 왈,

“무죄한 부인을 이 지경에 이르게 하였으니, 슬프다, 나의 용렬함이며. 비록 후회한들 어찌 부인을 위로하리오. 내 이미 황천에 가지 못하고 물에 몸을 던지지 못하니 이 죄를 어찌 면하리오. 슬프고 슬프다. 보인이 무슨 죄로 만경창파(萬頃蒼波)에 죽었느냐?”

굽어보며 방성대곡(放聲大哭)하니 물결이 흐느끼고 천지가 참담하더라. 이 때 해는 서산에 지고 안개는 동정호에 일어나니 한림의 무한한 비회(悲懷)와 부인의 구천(九泉)에 사무치는 애원(哀怨)이 전후(前後)가 똑같더라.

(나) 한림이 이에 원혼을 위로하고자 하여 강촌에 내려가 술상을 갖추고 등불 밑에 앉아 제문을 지으며 슬픈 감회 가슴에 가득하여 피눈물 흘러 지필(遲筆)을 적시니 밤늦도록 지으나 한 자도 이루지 못하고 앉아 탄식만 하더니, 문득 함성 소리 진동하거늘 한림이 대경하여 창을 열고 보니, 한때 도적이 창검을 가지고 들어오며 크게 소리하여 왈,

“유연수는 가지 말라.”

하거늘 한림이 크게 놀라 북쪽 창을 열고 나와 급히 도망하여 동서를 분별치 못하고 달아나니, 황급한 말을 어찌 다 기록하리오. 겨우 백여 걸음 가다가 뒤를 보니 불빛이 점점 가까워 오고 함성이 더욱 진동하니 한림이 당황하여 초목 사이로 살

기를 바라 달리더니 의관이 다 부서지더라. 급히 가매 수풀이

다하고 큰 강이 탁치니 몸에 날개 없으니 어찌 능히 달아나리오. 적당(賊黨)이 외쳐 왈,

“유연수 비록 살고자 한, 팔랑개비라 하늘로 오르며 두더

지라 땅으로 들라?”

하며 급히 쫓아오거늘 한림이 하늘을 보고 탄식 왈, “내 어찌 이 곳에서 죽을 줄을 알았으리오. 차라리 강계 던져 부인의 혼백을 의지하리라.”

하고 강을 향하고 달리더니, 홀연 바람결에 사람 소리 들리거늘 한림이 생각하되 이곳에 혹 어선인가 하고 황망히, 달리더니 달빛은 희미하고 적적한데 멀리 바라보니 조각배 하나 띄우고 푸른 옷을 입은 여동(女童)이 뱃머리에 의지하여 손으로 물결을 희롱하며 낭랑한 소리를 시를 읊고 있거늘,

(중략)

한림이 급히 불러 왈, “여동은 인명을 구하라.”

하거늘 이 때 묘화와 부인이 배의 창문을 반쯤 열고 여동을 명하여 가로되,

“급히 배를 대어 저 상공을 구하라.”

하니 여동이 급히 배를 저어 언덕에 대니 한림이 급히 오르며 왈,

“뒤에 강도들이 급히 따라오니 바빠 행하여 수중의 어육(魚肉)을 면하게 하라.”

말을 마치지 못하여 조적 등이 이미 강가에 이르러 대성 왈,

“여동은 바빠 배를 대라. 그 배 안의 행인이 살인한 도적이매 계림 태수께서 우리를 보내어 급히 잡아 오라 하여 왔으니 만일 놓치면 너희 등이 그 도적과 같이 죽을 죄를 당하리라. 바빠 배를 대라.”

하니 한림이 비로소 동청(董靑)의 적당인 줄 알고 더욱 두려워하여 여동에게 왈,

“나는 경성의 유한림이요, 저 놈들은 다 도적이니 급히 배를 건너 화를 면하게 하라.”

하니 여동이 적당에게 이르되,

“너희 무리 지어 죄 없는 군자를 해코자 하니 우리 어찌 군자를 구치 아니 하리오.”

모든 도적이 왈,

“감히 관청의 명령을 어기니 장차 어디로 가리오.”

여동이 크게 웃고 배의 창문을 의지하고 돛대를 쳐 노래하며 돛을 달아 배를 저어가니 적당이 하릴없이 돌아가더라.

—김만중, <사씨남정기>

* 약주, 동정호, 구의산, 소상 : 중국의 지명

정리	
----	--

32.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한림의 정서와 공간적 배경이 상응하고 있다.
 - ② (가) :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한림의 회한이 깊어지고 있다.
 - ③ (나) : 한림의 내면 갈등이 대화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 ④ (나) : 급박한 상황 전개가 시간적 배경과 상응하고 있다.
 - ⑤ (나) : 한림의 비통한 심리에 극도의 위기감이 부가되고 있다.

33. 윗글을 읽고 사건 전개에 필연성과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의문은?
- ① 유한림은 왜 회사정에 갔을까?
 - ② 유한림은 왜 물에 빠져 죽을 생각을 했을까?
 - ③ 도적의 무리는 왜 퇴로도 차단하지 않고 달려들었을까?
 - ④ 묘회와 부인의 배가 어떻게 해서 그 순간에 나타났을까?
 - ⑤ 유한림은 존사람들에게 사씨에 대해 어떻게 물어 보았을까?

34. (가)의 밑줄 친 부분에 담긴 사씨의 심정과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낸 까마귀 흰 빛을 시샘할세라
청강에 기껏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 ② 문노라 먹라수야 굴원이 어찌 죽다터니
참소에 더럽힌 몸 죽어 문힐 땅이 없어
청파에 골육을 씻어 고기 뱃속 감추니라
 - ③ 산은 옛 산이로되 물은 옛 물 아니로다
밤낮으로 흐르거든 옛 물 있을소냐
사람도 물과 같도다 가고 아니 오는도다
 - ④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 님 여의옵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안 같아서 울어 밤길 예뵈다
 - ⑤ 욕심 난다 하고 몹쓸 일을 하지 마라
나는 잊어도 남이 내 모습 보느니라
한 번을 악명을 얻으면 어느 물로 씻으리

35. (나)에서 유한림이 못 쓴 '제문'을 독자가 대신 쓰려고 한다. <보기>처럼 초안을 작성하였을 때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보기>

사월 보름날, 연수는 부인에게 조출한 음식을 차려 놓고 고하오. 부인이 죽었다니 그것이 정말이요? 아직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소.

돌이켜 보니 우리 처음 혼인했을 때가 제일 화평했던 때가 아니었던가 싶소. 그 좋았던 시절도 이제는 추억이 되고 말았구려.

내 잠시 혼미하고 용렬하여 요망한 말을 듣고 부인을 쫓아냈으니 차마 볼 면목이 없소.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그러나 이제 후회한들 어찌겠소.

부인이 이제 이 세상에 없으니 내 무슨 낮으로 살겠소. 부인을 따라 죽고 싶은 심정이요. 저승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명복을 비오.

- ① 부인의 현숙한 덕행을 칭송함
- ② 부인이 쫓겨난 후의 행적을 기술함
- ③ 부인을 모함한 자에 대한 분노를 표출함
- ④ 부인과 헤어진 후의 경제 사정을 회고함
- ⑤ 부인을 죽도록 한 불합리한 제도를 비판함

36. 위 소설을 ‘우리 고전 다시 읽기 운동’의 대상 작품으로 추천하고자 한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추천의 이유로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2점]

- ①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전통적인 가치 인식과 함께 속도감과 박진감을 한 축으로 삼는 현대적 서사성을 두루 갖추고 있다.
- ② 한국 문학의 세계화를 지향해야 하는 시점에서, 중국을 공간적 배경으로 삼은 국제적 감각과 권선징악이라는 보편적 주제가 돋보인다.
- ③ 당대의 풍속을 사실적으로 반영하며, 유교적 가치관을 실감 있게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대상으로 적절하다.
- ④ 독백을 통한 인물의 내면 묘사가 탁월하고, 집단의 고뇌와 갈등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고전 소설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 ⑤ 쫓고 쫓기는 행위, 위기 일발의 상황, 극적인 조력자의 출현 등 활극을 연상케 하는 장면들은 요즘의 대중소설과 견줄 만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09년 11월 고1

“너희들이 이렇게 장성하였으니, 너희 모친이 살아 있었다면 오죽이나 기쁘겠느냐. 그러나 팔자가 기구하여 허씨 같은 계모를 만나 구박이 자심하니, 너희들의 슬퍼함을 짐작하겠다. 이후에 이런 연고가 또 있으면 내가 처치하여 너희 마음을 편안케 하리라.”

하고 나왔다. 이때 흥녀 허씨가 창 틈으로 이 광경을 엿보고 더욱 분노하여 흥계를 생각하다가 문득 깨닫고, 제 자식 장쇠를 불러 큰 쥐 한 마리를 잡아오게 하였다. 그리고는 그것을 껌질을 벗기고 피를 말라, 낙태한 형상을 만들어 장화가 자는 방에 들어가 이불 밑에 넣고 나왔다. 좌수가 들어오기를 기다려 이것을 보이려고 하였는데 마침 좌수가 외당에서 들어왔다. 허씨가 좌수를 보고 정색하며 혀를 차는지라, 괴이하게 여긴 좌수가 그 연고를 물었다.

“집안에 불측한 변이 있으나 낭군은 필시 첩의 모해라 하실 듯하기에 처음에는 발설치 못하였습니다. 낭군은 친어버이라, 나오면 이르고 들어가면 반기는 정을 자식들이 전혀 모르고 부정한 일이 많으나, 내 또한 친어미가 아니므로 짐작만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늦도록 기동치 아니하기에 몸이 불편할까 하여 들어가 보니, 과연 낙태를 하고 누웠다가 첩을 보고 미처 수습치 못하여 찢찢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첩의 마음에 놀라움이 컸지만, 저와 나만 알고 있거니와 우리는 대대로 양반이라 이런 일이 누설되면 무슨 면목으로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좌수는 크게 놀라 이에 부인의 손을 이끌고 여아의 방으

로 들어가 이불을 들추어 보았다. ㉠ 이때 장화 자매는 잠이 깊이 들어 있었으니, 허씨가 그 피 묻은 쥐를 가지고 날뛰었다. 용렬한 좌수는 그 흥계를 모르고 놀라며,

“이 일을 장차 어찌하리오.”

하며 고심하였다. 이 때 흥녀가 하는 말이,

“이 일이 매우 중난하니 남이 모르게 죽여 흔적을 없이 하면, 남은 이런 줄은 모르고 첩이 심하여 애매한 전실 자식을 모해하여 죽었다고 할 것이요, 남이 알면 부끄러움을 면치 못할 것이니 차라리 첩이 먼저 죽어 모르는 게 나을까 합니다.”

하고 거짓 자결하는 체하니, 저 미련한 좌수는 그 흥계를 모르고 급히 달려들어 붙들고 빌면서,

“그대의 진중한 덕은 내 이미 아는 바이니, 빨리 방법을 가르치면 저 아이를 처치하겠소.”

하며 울거늘, 흥녀는 이 말을 듣고,

‘이제는 원을 이룰 때가 왔다.’

하고, 마음에 기꺼워하면서도 겉으론 탄식하여 하는 말이,

[A] “내 죽어 모르고자 하였더니, 낭군이 이토록 과념하시니 부득이 참거니와, 저 아이를 죽이지 아니하면 장차 문호에 화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기세양난이니 빨리 처치하여 이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십시오.”

하였다. 좌수는 망치의 유연을 생각하고 망극하나, 일변 분노하여 처치할 모책을 의논하니, 흥녀는 기뻐하며,

“장화를 불러 거짓말로 속여 저희 외삼촌댁에 다녀오게 하고, 장쇠를 시켜 같이 가다가 연못에 밀쳐 넣어 죽이는 것이 상책일까 합니다.”

좌수가 듣고 옹계 여겨 장쇠를 불러 이리이리하라고 계교를 가르쳐 주었다.

[중간 줄거리] 장화는 장쇠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언니의 죽음을 슬퍼한 흥련 역시 자결한다. 장화 흥련 자매는 원귀가 되어 부사를 찾아와 원한을 풀어 줄 것을 하소연한다.

부사가 듣기를 다하고 물어 말하기를,

“네 말이 그러할진대, 낙태한 것을 가져오면 죽히 알겠다.”

흥녀 대답하여 여쭙기를,

“소녀의 골육이 아닌 고로 이런 일을 당할 줄 알고 그 낙태한 것을 깊이 장지하였다 가져왔나이다.”

하고 즉시 품속에서 내어 드리니 부사가 본즉, 낙태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에 분부하기를,

“말과 사실이 어긋남이 없으나 죽은 지 오래되어 분명히 설명할 수 없으니 내 다시 생각하여 처리할 것이니 그냥 물러가 있거라.”

그날 밤에 흥련의 형제가 완연히 부사 앞에 나타나서 절하고 여쭙기를,

“소녀들이 천만 의외에 밝으신 사또를 만나서 소녀 자매의 누명을 설원할까 바랐었는데, 사또께서 흥녀의 간특한 꾀에 빠지실 줄 어찌 알았겠나이까.”

하며 슬피 울다가 다시 여쭙기를,

[“일월같이 밝으신 사또는 깊이 통촉하십시오. 옛날에 순임금도 계모의 화를 입었다 하거니와, 소녀의 뼈에 사

무친 원한은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바이거늘, 이제 사또께서 잔악한 계집의 말을 끈이들으시고 깨닫지 못하시니, 어찌 애달프지 않겠나이까. 바라건대 사또께서는 흥녀를 다시 부르셔서 낙태한 것을 올리라 하여 배를 가르고 보시면, 반드시 통촉할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소녀 자매를 천만 금촉히 여기셔서 법을 밝혀 주시고, 소녀의 아버지는 본성이 착하고 어두운 탓으로 흥녀의 간계에 빠져 흑백을 분별치 못하는 것이니 충분히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라겠나이다.”

말을 마치고 흥련의 자매는 일어나 절하고 청학을 타고 반공에 솟아 갔다.

- 작자 미상, 「장화홍련전」 -

정리	
----	--

37.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기>

ㄱ. 반어적 표현을 통해 풍자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ㄴ.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성품을 직접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ㄷ. 사실적인 배경 묘사를 통해서 사건의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
 ㄹ. 인물 간의 관계에서 빚어진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8. 위 글의 인물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장쇠’는 ‘장화’를 미워하여 음모에 가담했다.
 ② ‘좌수’는 자식의 생명보다는 가문의 체면을 중시한다.
 ③ ‘부사’는 ‘흥녀’의 증거물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④ ‘장화’ 자매는 ‘부사’의 도움으로 원통함을 해소하려고 한다.
 ⑤ ‘흥녀’는 과장된 행동을 통해 ‘좌수’의 결단을 유도하였다.

39. [A], [B]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A]는 [B]와 달리 상대방을 지켜세우며 비위를 맞추고 있다.
 ② [B]는 [A]와 달리 상대방을 비난하며 상대방을 굴복시키려 하고 있다.
 ③ [A]는 고사를 인용하여, [B]는 권위자의 견해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 하고 있다.
 ④ [A]는 상황의 시급함을 들어, [B]는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며 사건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⑤ [A], [B]는 모두 상대방의 감성을 자극하여 특정 인물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고 있다.

40. <보기>는 ㉠의 상황에서 ‘장화’가 보인 반응이다.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1점]

<보기>

장화 : (놀라 탄식하며) (㉡) (이)라더니, 이게 무슨 변고인가?

- ① 청천벽력(靑天霹靂) ② 새옹지마(塞翁之馬)
 ③ 인과응보(因果應報) ④ 소탐대실(小貪大失)
 ⑤ 오비이락(烏飛梨落)

답지

- 1) ㉠ ㉡ [인물의 성격 및 태도 파악] ㉠ '시녀'가 노래를 부른 이유는 '여인' 명에 의한 것이므로 양생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드러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 '서로 즐거이 맞이하게 되었으니 이 또한 평생의 기이한 인연일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양생'과 인연을 맺은 것에 대해 명분을 제시했다. ㉢ '양생'은 '여인의 말씨와 웃음이 맑고 고우며 몸가짐과 용모가 압전했으므로, 틀림없이 귀한 집 처녀가 몰래 나온 것이려니 생각하고는 더 의심치 않았다.'라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 길가에서 양생이 주발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 종은 주인에게 "아가씨 장례 때 함께 묻었던 물건을 어떤 사람이 훔쳐서 가지고 있다."고 전했으므로 적절하다. ㉤ 여인의 부모가 "내겐 딸만 하나 있었네. 그런데 그 아이는 왜구들의 난리 때 ~ 장사를 미루어 오다가 오늘에 이르게 되었네."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2) ㉠ ㉡ [배경의 의미 및 역할 파악] ㉠ '좁은 판자방'에서 양생과 여인이 백년해로하기로 인연을 맺었고, '하얀 휘장 안'은 여인의 부모가 양생과 여인이 함께 머물도록 허락한 곳이므로 여인의 부모로부터 인연을 인정받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 ㉠ 두 공간 모두 양생이 여인을 위해 마련한 공간인지 알 수 없다. ㉢ 두 공간 모두 여인이 타의에 의해 들어갔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 제의성이나 신성성 모두 관련이 없다. ㉤ 모두 현실 속에 설정된 공간이다.
- 3) ㉠ ㉡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 <보기>의 기획 의도는 '원작에 충실하게 하며, 현실 너머에 있는 여인과 만나서 사랑을' 하는 양생의 사랑이 가벼운 만남에 익숙한 현대의 시청자들에게 '현재의 삶을 새롭게 인식할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벼운 만남에 익숙한 현대의 시청자들에게 만남의 소중함을 깨닫게 한다는 ㉡가 적절하다. ㉢ ㉠ '평범한 일상으로 다가서게' 한다는 것은 기획 의도와 거리가 멀다. ㉣ '현실을 잊게 한다'는 것도 기획 의도와 거리가 멀다. ㉤ '현대 시청자들의 감각과 기호에 맞'춘다는 것도 기획 의도와 거리가 멀다. ㉥ '비현실적인 요소는 줄인다는 것도 기획 의도와 거리가 멀다.
- 4) ㉠ ㉡ [상황에 적절한 한자성어 파악하기] ㉠ 두문불출(杜門不出)은 '집에만 있고 바깥출입을 아니함'의 뜻이므로 ㉡의 상황과 유사하다. ㉢ ㉡ 가인박명(佳人薄命)은 '아름다운 여자는 수명이 짧다'는 뜻이다. ㉣ 일편단심(一片丹心)은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이라는 뜻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변치 아니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이다. ㉤ 망양지탄(亡羊之歎)은 '갈림길이 매우 많아 잃어버린 양을 찾을 길이 없음을 탄식한다'는 뜻으로, 학문의 길이 여러 갈래여서 한 갈래의 진리도 얻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이다. ㉥ 독야청청(獨夜靑靑)은 '남들이 모두 절개를 꺾는 상황 속에서도 홀로 절개를 굳세게 지키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5) ㉠ ㉡ [구절의 표현상 특징과 효과 파악] ㉠ ㉡은 여인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스스로 규방 속에 들어가 끝내 자신의 정절을 지키고자 했던 것에 대해 자책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행동에 대해 부모님이 옳게 여겼다는 것으로 보아, 오히려 이 부분에서 여인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 ㉠ '언제나와' '거닐곤 했다'로 보아 ㉣에 나타난 양생의 행동은 반복되는 행동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양생의 외로운 심리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 ㉡은 여인의 얼굴을 '월궁의 선녀'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 ㉡은 '제 님은 녹아 없어지고, '애간장이 찢어집니다'와 같은 과장 표현을 통해 여인의 절실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은 양생의 질문에 대해 되묻는 방식으로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양생의 의중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 ㉠ ㉡ [시의 표현과 인물의 말하기 방식 비교] ㉠ ㉡에서는 '짙 못 지은 비취새', '짙 잃은 원앙' 등에 자신의 감정을 투영하여 자신의 외로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 ㉡에는 어서 짙을 얻고 싶은 소망만 드러나 있을 뿐 다양한 소망이 열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에는 양생의 현재 처지와 소망이 솔직하게 표현되어 있으므로, 양생이 자신의 본심을 숨기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에는 부처님의 힘을 빌려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양생의 마음이 담겨 있으므로,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암시되어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은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는 짙을 구하고 싶은 소망을 드러낸 것으로, 둘 다 화자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7) ㉠ ㉡ [외적 준거를 통한 작품 감상] ㉠ 양생이 부처님에게 저포 놀이를 제안한 것은 현실 세계에서 이루지 못한 욕망을 부처님의 힘을 빌려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을 현실 세계와 환상 세계의 대립을 해소하려는 시도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 만복사는 현실 세계에 속한 양생과 환상 세계에 속한 여인이 만나는 공간이다. ㉣ 양생이 속한 현실 세계의 시간과 여인이 속한 환상 세계의 시간이 서로 다르게 설정된 것은 두 세계가 서로 다른 질서로 이루어진 세계임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양생은 여인과 인연을 맺음으로써 현실 세계에서 이루지 못한 욕망을 성취하게 되나, 얼마 지나지 않아 여인이 이별해야 할 시간이 되었다고 말함으로써 성취된 욕망이 현실 세계로 이어질 수 없음을 알게 된다. ㉥ 양생은 좋은 배필을 얻고자 하나 늦도록 장가를 가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양생이 현실 세계 속에서 욕망을 이루지 못한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8) ㉠ ㉡ [해설] 작품의 내용은 대화가 중심을 이루고 있고, 서술자는 사건을 시간에 흐름에 따라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다. 인물의 내면 심리는 최소한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인물의 대화나 행동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파악되도록 하였다.

[오답피하기] ㉠ 사건에 대한 주관적인 해설보다는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 그 자체가 사실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 작품 인물의 대화가 지문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인물의 회상 등을 통해 사건의 흐름이 역전되는 대목은 발견되고 있지 않다. ㉤ '누가 한림의 뜻을 돌릴 수 있겠는가?' 등에서 서술자의 개입이 발견되고 있다.

9) ㉠ ㉡ [해설] 사씨가 벼치마를 입고 보기에도 처참한 것은 사실이나, ㉢에서 그리고 있는 것은 낡고 해진 사씨의 옷이 아니라, 의복(의 무계)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초췌해져 있는 사씨의 몸이다. [답] ㉢

[오답피하기] ㉠ 유 한림이 베푸는 전별 잔치에 사씨가 없는 것을 보고 두 부인이 언짢은 표정을 짓는 것은 사씨가 곤경에 빠져 있음을 짐작하고 그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 사씨 문제를 가볍게 처리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는 것은 유 한림이 사씨 문제를 함부로 처리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살아서 두 부인을 뵈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한으로 여겼다는 것은 사씨가 자신이 머지않아 죽을 처지에 이를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였으니, 사씨 역시 이 상황을 '잘못된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그 무엇도 원망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의 책임을 결국 자신에게 돌려야 한다는 태도로 볼 수 있다.

10) ㉠ ㉡ [해설] ㉡에 이어지는 사씨의 말로 미루어 볼 때, ㉡는 사씨의 잘못된 판단과 관련되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사씨는 자신이 '눈은 있으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여' 이 지경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교씨를 첩으로 들이는 과정에서 사씨가 냉철한 판단을 하지 못

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㉔는 교씨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주문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㉔에서는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는 것이며, '사람을 잘 살피'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교씨의 사람됨을 잘 판단하라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답] ㉔

[오답피하기] ㉑ 말과 행동의 일치를 언급하며 이행할 수 있는 발언만을 신중하게 할 것을 당부하는 조언이다. 그러나 두씨 부인이 염려하는 것은 교씨를 첩으로 받아들이는 일을 사씨가 이행하지 못하거나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교씨를 첩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의 위험성이다. ㉒ 교씨를 받아들일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사람을 잘 대해주라는 내용이므로, 교씨를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두 부인이 했을 충고로 보기 어렵다. ㉓ 사람 됨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므로, 교씨의 사람의 됨됨이에 비판적인 두 부인이 했을 충고로 보기 어렵다. ㉕ 남편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며, 이는 교씨의 사람 됨됨이를 문제 삼았을 두 부인의 충고로 적절하지 않다.

11) ㉑ ㉑

12) ㉑ ㉑ [해설] 유공은 자기의 아들인 유한림과 사급사 부인의 딸이 혼인할 수 있도록 주파를 보내어 그 뜻을 전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급사 부인의 딸은 상대방의 마음을 오해하여 혼인을 거부한다. 하지만 사급사의 딸은 지현의 말을 듣고 오해를 풀고 한림과 혼인하게 된다.

[오답피하기] ㉑ 현재와 과거의 장면이 교차되고 있지 않다. ㉒ 전기적이거나 우연적인 사건 전개가 나타나 있지 않다. ㉔ 선과 악이 대립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지 않다. ㉕ 혼인 문제를 둘러싼 인물들의 심리가 드러나 있을 뿐, 환상적인 장면 묘사가 드러나 있지 않다.

13) ㉑ ㉑ [해설] (가)에서 혼인 당사자인 소저가 혼인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나)에서는 혼인 당사자인 소저가 직접 혼인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다.

[오답피하기] ㉑ (가)에서 주파가 소저의 자태를 칭찬하며 경솔하게 혼인을 권유하고 있지만, (나)에서 지현은 신중하게 혼인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㉒ (가)에서 주파가 유공 가문의 부귀와 한림의 문체와 풍류가 빼어남을 내세우고 있으나, (나)에서 지현은 사급사의 청명과 직절을 거론하며 그의 성덕을 말하고 있다. ㉓ (가)에서 사급사 부인이 주파를 맞이하고 있으나, (나)에서 유모가 지현을 맞이하고 있다. ㉕ (가)에서 소저가 상대방 집안을 오해하여 혼인을 거부하지만, (나)에서는 그 오해가 풀리고 소저가 한림과 혼인하게 된다.

14) ㉑ ㉑ [해설] 사급사의 부인은 주파에게 예의를 갖추어 자신의 딸이 한림과 혼인할 수 없는 근거를 말한 뒤에 정중히 거절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㉑ 상대방에게 요점을 반복하고 있지 않다. ㉓ 익살과 기지를 섞어 말하기보다는 진지하고 정중하게 거절하고 있다. ㉔ 상대방을 설득하기보다는 혼인 할 수 없는 근거를 말하고 있다. ㉕ 상대방의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딸이 처한 상황을 근거로 말하고 있다.

15) ㉑ ㉑ [해설] 사급사 부인은 주파의 거듭된 설득에도 불구하고 혼인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흔들어도 꺾이지 않음을 뜻하는 요지부동(搖之不動)이 적절하다.

[오답피하기] ㉒ 오불관연은 남의 일에 무관심하거나 간여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이르는 말. ㉓ 삼고초려는 어떤 인재를 맞아들이기 위해 그의 사양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찾아가 간절하게 청하는 일. ㉔ 노심초사는 근심하면서 속을 태우는 것을 뜻함. ㉕ 유구무언은 입은 있으나 말을

없다는 뜻으로 변명이나 항변할 말이 없음을 뜻함.

16) ㉑ ㉑ [해설] 사급사 부인의 딸이 혼인을 거부한 이유는 주파가 자신의 색만을 강조하고 아버지의 성덕을 거론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지현은 사급사의 청명과 직절을 거론하며 그의 성덕을 칭찬하고 있다. ㉒은 바로 사급사의 성품을 칭찬하는 내용이다. ㉓ 추위에 굴하지 않고 꽃을 피우는 국화의 절개를 예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오답피하기] ㉑ 세상에 적절히 타협하며 살아가자는 삶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㉒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㉔ 풍류를 즐기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㉕ 자연 속에서 자연을 즐기는 삶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17) ㉑ ㉑ [해설] 시간의 역전적 구성이라 함은 사건을 시간의 흐름과 달리 배치하여 구성 상의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이 글은 모든 사건이 시간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으므로 역전적 구성이라 할 수 없다.

[오답피하기] ㉑ 이 글은 유한림의 정실 부인인 사씨와 첩인 교씨의 갈등을 다룬 가정 소설이다. ㉒ '자고로 여자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못할 일이 없는 법이라'에서 서술자의 주관적 판단이 보이고, 마지막 단락의 '한림은 교씨의 유혹에 빠져 총명이 점점 흐려져 사태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니 어찌 안타깝지 아니하라'에서 서술자적 개입하여 안타까움의 감정을 토로하고 있다. ㉔ 사씨와 교씨가 유한림의 사랑을 얻기 위해 벌이는 대결은 전형적인 삼각관계이다. 교씨가 악행을 저지르는 반면에 사씨는 규방 여인의 법도를 지키는 모습을 보인다. ㉕ 십량의 계책이 마지막 단락에서 장주의 병세가 악화되는 것으로 실현되기 시작한다. 이를 통해 사건이 진전되어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8) ㉑ ㉑ [해설] [A]에서는 '서사(書士) 동청'이 살아온 과정을 간략하게 제시함으로써 그의 바르지 못한 성품이 형성된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피하기] ㉑ 이 지문에는 성격이 변화하는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고전소설의 인물은 성격이 변화하지 않는 평면적 인물이 경우가 많다. ㉒ 이 지문에는 '동청'의 외모를 '풍모가 반듯하다'고 묘사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씨와 유 한림의 갈등은 동청의 성품과 관련된 것이다. ㉓ 이 소설의 주인공인 사씨가 처한 상황에 대한 묘사는 마지막 문장의 '한림은 교씨의 유혹에 빠져 총명이 점점 흐려져 사태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니 어찌 안타깝지 아니하라'처럼 직설적이다. ㉔ 이 지문에서 인물의 미래는 작중 인물의 시각으로 드러나 있지 않고, 복선을 통해 암시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19) ㉑ ㉑ [해설] '석 낭중'이 '유한림'에게 '동청'을 소개한 것은 '동청'의 정체를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석 낭중'의 행동은 자신의 부담을 남에게 떠넘긴 행위이기 때문에 입신양명(立身揚名)을 추구하는 당시의 세태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

[오답피하기] ㉒ '사씨'가 '동청'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은 '사씨' 자신이 도덕적으로 고매한 품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행실이 바르지 않은 그를 멀리한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도덕성이나 평판을 중시하는 당시의 분위기와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㉓ '유한림'이 아내를 대하는 태도는 남존여비(男尊女卑) 사상이 만연해 있던 시대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사씨'의 지혜로운 판단도 여자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㉔ '교씨'가 '남의 첩이 되어 장차 앞일이 어떻게 될지 기억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고 하는 대목에서 축첩의 관행과 폐단을 알 수 있다.

20) ㉑ ㉑ [해설] ㉑의 진술은 성향이 불량한 사람과 어울리면 잘못된 길

로 빠진다는 취지이다. 속담으로 이를 표현하면, '먹을 가까이 하면 겹어진다'이다.

- 21) ㉠ ㉡ [해설] 여승 일행이 '묘당의 문'으로 들어와 사 씨 일행을 만난 것이므로, 사 씨가 여승 일행을 만난 곳은 '묘당 (황릉묘)'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황릉묘'를 떠나 정처 없이 방랑하던 중에 만났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차의 향은 여전히 입안에 남아 있었고 낭랑의 말도 귀에 생생했다'에서 사 씨가 깨어난 뒤에도 꿈에서 경험한 일을 생생히 느꼈음이 드러난다. ② '단청은 떨어지고 전각은 황량했다'는 것에서 사 씨 일행이 찾아가던 '황릉묘'는 초라하고 황량한 곳으로 그려진다. ③ 군산은 지리적 형세가 험하며 '예로부터 사람의 발자취가 닿지 않는 곳'으로, 세속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공간이다.

- 22) ㉠ ㉡ [해설] ㉠에서는 가정을 통해 자신의 심경을 강조하여 상대방의 동정심을 자아내고 있는 것으로 '과거와 현재의 대조'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첩이 듣기에 남해는 세상의 한구석으로 길이 멀고 험하다 했습니다'에서 남해로 가는 길이 쉽지 않음을 듣고, '첩에게는 수레도 없고 양식도 없으니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들며 제안이 실현 불가능함을 드러내고 있다. ㉡ '첩이 평생 모시고 심부름이라도 하길 바랐던 분들이옵니다'에서 자신을 낮춤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여승은 '출가한 사람은 자비를 근본으로 삼습니다. 게다가 보살의 명까지 받았습시다'에서 자신의 행위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암자에 폐를 끼칠까 염려하는 사 씨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 23) ㉠ ㉡ [해설] [C]의 '꿈속에서 낭랑은 사 씨에게 '남해 도인'을 찾아가 잠시 의탁하라고 하였는데, 실제로 남해에 사는 여승이 나타나 의지할 곳 없는 사 씨를 군산으로 데리고 간다. 따라서 [C]의 '꿈속에서 일어난 사건은 사 씨가 의지할 곳을 알려주었으므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심화하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C]의 '남해도인이 그대와 깊은 인연이 있으니 잠시 의탁하도록 하세요. 이 또한 하늘의 뜻이지요'에서 하늘의 뜻(천상계)에 따라 사 씨가 겪게 될 일(지상계에서의 사건이 전개되는 방향)을 예고하고 있다. ② [C]의 '힘쓰고 힘써, 선을 행하세요'에서 사 씨가 지상계에서 지켜나가야 할 삶의 지표가 제시되며 '오십 년 뒤에 마땅히 이곳에서 만날 수 있을 거예요'에서 사 씨의 예정된 미래의 모습이 제시된다. ④ '장강', '반첩여' 등의 인물은 부녀자의 덕을 실천한 여성들이다. 따라서 사 씨가 [C]의 '꿈속에서 이들과 만나고 '다른 날 마땅히'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는 것은 사 씨의 현숙한 인물됨과 관련 지을 수 있다.

- 24) ㉠ ㉡ [해설] '관음찬'은 묘혜의 부탁을 받아 사 씨가 쓴 관음보살을 찬양한 글이다. 중략 이후의 내용을 살펴보면 묘혜는 '관음의 현몽'으로 위기에 처한 사 씨를 구한다. 관음이 사 씨를 구해 준 것은 맞지만 '관음찬'이 사 씨를 구해준 것이 아니다. 따라서 '관음찬'이 조력자의 구실을 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태담·태사'로 비유된 관음의 덕과 묘혜가 유 소사에게 한 말에서 짐작할 수 있다. ② 제시문의 말미에 '찬의 의미가 자기의 유락함을 그렸는지라'는 서술과 관음이 있는 곳이 외로운 섬이 사 씨가 묘혜와 같이 도달한 '군산'과 그 모습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③ 사 씨와 묘혜의 첫 만남이 '관음찬' 때문이었고, 두 번째 만남에서도 '관음찬' 덕분에 서로의 정체를 파악하게 된다. ⑤ '관음찬'은 며느리로서의 '사 씨'의 재주와 덕행을 평가하는 도구로서 활용되었는데 이 과정을

무사히 통과한 덕분에 '사 씨'는 '유 소사'의 며느리가 된다.

- 25) ㉠ ㉡ [해설] ㉠에서 묘혜는 자신이 구한 사람이 '관음찬'을 지어 준 사 씨임을 알고, 사 씨가 그간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듣고, 사 씨의 처지에 공감하여 위로하고 있는 구절이다. 하지만 묘혜는 사 씨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한다. 묘혜가 사 씨의 앞날을 알고 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고, 더더욱 사 씨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지금까지에서 알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 26) ㉠ ㉡ [해설] ㉠은 사 씨가 관음찬을 어떤 방향으로 감상하고 있는지 드러내는 구절이다. '흰 옷을 입고 아이를 안았도다'는 그림에 나타난 사실적 정보이고, '그 위인을 대강 알리도다'는 그림의 사실적 정보에서 유추해 인물의 덕성이다. 즉 사 씨는 그림의 사실적 정보에서 유추하여 인물의 사람됨, 인물의 덕성, 인물의 내면세계 등을 이끌어내고 있다. ㉡도 낚시를 하고 있는 사실적 정보에서 인물의 정신적 경지 즉 인물의 내면세계를 이끌어내고 있다.

- 27) ㉠ ㉡ [해설] ㉠은 사 씨가 시집에서 쫓겨나 외딴 섬으로까지 떠돌게 된 상황에서 자신에게 닥친 운명을 한탄하는 심정을 표현한 말이다. <보기>에서 중장이 자신의 운명을 탄식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므로, 초장과 중장은 사 씨의 처지를 드러내는 내용으로 구성되던 된다. ㉡은 초장과 더불어 외딴 지역으로 떠돌게 된 처지를 드러내기 위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떠돌게 된 처지와 연결시킬 구체적 내용이 없다. ② 처지보다는 '매화꽃'을 통해 내면세계만 드러내고 있다. ④ 늙음을 탄식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⑤ 자신의 처지보다는 상대('임')의 처지만 부각되어 있다.

- 28) ㉠ ㉡ [해설] 한림과 사씨는 이를 진정으로 여겼다 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 '노야께서 소녀의 혼사를 위하여 누추한 집에까지 옥림하시니 실로 황공하기 그지없습니다.'의 진술을 통해 볼 때 부적절하다. ㉣ '일찍이 매파를 보내었으나 좋은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매파가 실언을 하여 그리 되었을 것입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부적절하다.

- 29) ㉠ ㉡ [해설] ㉠. '유 소사는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뜻을 정중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사 급사택의 처자는 유한요조하여 여사의 품모가 있다고 하니 이는 참으로 제가 구하는 사람입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지현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좋은 분위기를 유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는 '나로 하여금 중매하게 하시어 진진지호를 맺으려 하시니 이는 아름다운 일이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30) ㉠ ㉡ [해설] '장주'에 비해서 '인아'에게 각별한 정을 보내는 '한림'의 행동은 가정 내의 갈등이 해소될 것임을 암시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교씨'의 시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 ㉢ '인아가 점점 자라 장주와 같이 놀게 되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31) ㉠ ㉡ [해설] 마지못해 부인에게 경하하며 겉으로 기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에서 마음이 음흉하고 불량하여 겉과 속이 다름을 의미하는 '표리부동(表裏不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32) ㉠ ㉡ [해설] (가)에서는 가을 물가의 황혼녘이라는 배경이 한림의 비탄을 깊게 하며, 그 비탄의 정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고조되고 있다. 특

히, 벽 위에 남겨진 사씨의 글을 발견하면서 한림은 더욱더 회한에 젖어 들고 있다. (나)에서는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 때문에 도적들에게 쫓기는 한림의 위기 상황이 더욱 급박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나)에서 한림의 말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한 것으로 내면적 갈등과는 거리가 멀다.

33) ㉠ ④ [해설] 유한림이 회사정에 간 이유(㉠)와 물에 빠져 죽으려는 동기(㉡)는 지문에 직접 제시되어 있으며, ㉢의 질문 내용은 촌사람들의 대답과 문맥에서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의 도적의 행동은 사건의 전개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다. 그러나 구원자(묘희와 부인)의 배가 위기 상황에서 '홀연히' 나타난 것은 사건의 우연성과 관계 깊은 것으로서, 인과적 필연성이 없는 사건 전개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4) ㉠ ② [해설] 사씨의 글은 누명을 쓰고 방랑하다가 비탄을 이기지 못하고 자결하려 할 때 남긴 것이다. ㉡는 초나라의 굴원이 참소에 의해 쫓겨났다가 자결한 심경을 읊은 시조인데, 비통함과 한의 정서가 사씨의 글과 유사하다. ㉢은 지조를 지키겠다는 결의를 표현한 것이며, ㉣은 쉽게 변하는 사람의 모습을 표현했으며, ㉤는 임(단종)을 유배지에 호송하고 돌아오는 슬픔을 무심히 흐르는 물에 의탁하여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태도를 강조한 시조이다.

35) ㉠ ① [해설] <보기>의 제문은 한림의 심경, 추억, 자기 행동에 대한 회한, 명복을 비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 앞에는 혼인 직후 화평했던 시절에 대한 추억을, □ 뒤에는 요망한 참언에 속아서 부인을 쫓아낸 자신의 잘못된 행실에 대한 반성을 담고 있으므로, □에 들어갈 적당한 내용은 '부인이 평상시에 보이던 품행과 덕성' 등이다.

36) ㉠ ① [해설] (가)에서는 잃어버린 부인과 자식을 찾아 헤매는 비통한 심정이 그려지고 있으므로 '가족의 가치'에 대한 전통적 인식을 발견할 수 있고, (나)에서는 쫓기는 상황의 급박함을 잘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을 배경으로 한 것은 당시의 사대주의 사상의 반영이라 할 수 있을 뿐, 세계화와는 거리가 멀며(㉡), 이 글에는 당대의 풍속에 관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 또한 집단의 고뇌와 갈등보다는 개인적인 고뇌를 보여주고 있으며(㉣), (나)의 내용을 활극(난투 장면을 주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난투 장면을 남발하는 대중소설은 지양해야 할 것이지 경쟁력을 견줄 만한 것은 아니다(㉤).

※ '장화홍련전'은 '어룡전'을 대신하여 넣어 두었다. 어룡전과 매우 비슷한 구성을 지녔으며 좀더 언급되는 작품인 만큼 함께 공부하도록 하자.

37) ㉠ ④ [해설] '흥녀 허씨', '용렬한 좌수' 등의 표현에서 서술자가 등장 인물을 직접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계모인 흥녀 '허씨'가 정실부인의 딸들인 '장화'와 '홍련'을 흥계를 통해 가정에서 축출하고, '장화'와 '홍련'이 원혼이 되어 '부사'에게 원통함을 풀어 주기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인물 간의 관계에서 빚어진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8) ㉠ ① [해설] '장쇠'가 '장화'를 미워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제시된 정보만을 바탕으로 평가할 때, '장쇠'는 어머니인 '허씨'의 말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 '좌수'는 '남이 알면 부끄러움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허씨'의 말에 '장화'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 '부사'는 '흥녀'의 말과 사실이 어긋남이 없으나, 증거물로 내보이는 '낙태한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 '장화' 자매는 원혼이 되어 부사에게 자신의 원통함을 호소하고 있다. ㉤ '흥녀'는 '거짓 자결하는 체'하며 '좌수'의 결단을 유도하

고 있다.

39) ㉠ ④ [해설] [A]에서 '허씨'는 시간이 지체되면 '장화'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장차 가문에 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장화'를 빨리 처치할 것을 '좌수'에게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이 가져올 부정적인 미래의 결과를 언급하며, 사태 해결의 시급함을 들어 좌수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B]에서 '홍련 자매'는 순임금의 옛 이야기를 들어 계모 '허씨'를 믿지 말 것과 '허씨'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며 자신들의 원통함을 풀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40) ㉠ ① [해설] ㉡는 흥녀 '허씨'가 쥐의 꺾짐을 벗기고 피를 발라 '장화'가 낙태한 것처럼 상황을 꾸미고, '좌수'를 미혹하고 있는 장면이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가지면 도덕적 비난을 넘어서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던 시대 상황을 고려할 때, 잠을 자다가 뜻밖의 크나큰 변고를 겪고 있으므로 '청천벽력' 즉,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것과 같은 상황이다. ㉢ 인생의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 자신이 한 대로 보답을 받는다는 말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속담과 같이 쓰일 수 있다. ㉤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음을 의미한다. ㉥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뜻으로, 아무 관계도 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도 때가 같아 억울하게 의심을 받거나 난처한 위치에 서게 됨을 이르는 말이다.